

■ 개선요망사항

- 별도시간을 마련하여 객석에서 출연(2~3명)하여 자유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 한일 경제 등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특강자(예: 펜앤뉴스 정규재 주필)를 초대했으면 한다.
- 한국 정부측에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총리 등)
- 자국어로 발언해 주기를 바란다.
- 청중으로부터의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았으며 (5), 주제발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주제 발표 후 토론 방법)
- 발표자료 전문이 아니더라도 주요 내용만큼은 실어줬으면 좋겠다.
- 일본측 발표자에 비해 한국측 발표자들의 성의가 없어 보였다. 좀더 성의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가 필요하다.
- 일부 강사나 기조연설자는 너무 구태의연한 인물이다. 미래전략에 필요한 참신한 연사로 섭외할 필요가 있다. (3)
- 경제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양국의 정치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 동종업종간 상담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분야별 오찬간담회)
-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나지 않도록 명함교환, 자유로운 업무 얘기, 기념촬영, 기업 소개를 위한 팜프렛 등의 비치 등 이해를 높이는 부차적 활동이 필요하다 (팜프렛 전시 검토)
-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 성공사례 소개를 기대한다.
- 행사홍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 세션1에서 경제면, 세션2에서 사회, 문화면에서의 논의를 한다면 다방면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20년 주제 건의 : 한일협력으로 지구촌 번영의 새 지평을 열자

[부록 3]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프리젠테이션 자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 기업 제3국 협력 2.0

2019. 9. 25

李 佑光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제3국 협력 고도화의 필요성
- III. 제3국 협력 고도화 방안(지역/분야)
- IV. 마치며..

한·일 산업협력, 55년 略史

▪ 한·일 산업협력은 50여년 간 양적, 질적으로 성장

-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양국 간 경제협력 본격화
 - 초기에는 양국 간 기술협력 및 수출확대가 중심이었으며 연수생 파견, 교류사업 등으로 다양화
- 한국기업의 성장과 함께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과 협력
 - "한국기업은 기술력 향상과 함께 저비용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 생산체제를 구축해 범용품 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 (KIEP 자료)
- 한일경제협회 등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

한·일 산업협력의 시기별 특징과 추진체제

구분	주요내용과 특징	주요 추진 체제
1965년~80년 (맹아기)	•한일 국교 정상화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양국 內 민간 합동 경제위원회 발족
1981년~97년 (성장기)	•한일 경험차관 40억 달러 •대일수출 촉진단 파견, 기술협력	한일경제협회(1981년~) 산업기술협력재단(1992년~)
1998년~2007년 (발전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정상회담) •한국기업 구조조정 및 전략적 제휴 확대	한일산업무역회의(1999년~) 한일신산업무역회의(2007년~)
2008년 이후 (성숙기)	•수평적 분업 진전 •일본의 대한 투자유치 확대에 관심	경제 4단체, 한일 경제인회의 등 민간 주도

출처: 한일 산업협력 패턴의 변화와 향후 과제 (KIET 2015)

2

협력관계 업그레이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한·일 교역이 위축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감소할 우려

- 상대국 직접투자, 무역 규모 등이 감소하는 추세
 - 2012년 무역규모가 최초로 1,000억불을 넘어섰으나, 2013년 이후 엔저·한일관계 영향 등으로 무역규모가 1,000억달러 아래로 하락 ('16년 718억 달러, '17년 820억 달러, '18년 851억달러)
- 최근 한·일 관계의 정체로 인해 한·일 기업간 협력 모멘텀이 약화

▪ 보호무역주의 확산, 美·中 무역전쟁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기업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

- 그 동안 쌓아온 협력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

한일 교역 동향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 체	對日	비중	전 체	對日	비중	전 체	對日
2015	526,757 (△8.0)	25,577 (△20.5)	4.9	436,499 (△16.9)	45,854 (△14.7)	10.5	90,258	△20,277
2016	495,426 (△5.9)	24,355 (△4.8)	4.9	406,193 (△6.9)	47,467 (3.5)	11.7	89,233	△23,112
2017	573,694 (15.8)	26,816 (10.1)	4.7	478,478 (17.8)	55,125 (16.1)	11.5	95,216	△28,309
2018	604,860 (5.4)	30,529 (13.8)	5.0	535,202 (11.9)	54,604 (△0.9)	10.2	69,657	△24,075

출처: KOTIS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3

< 목 차 >

I. 들어가며..

II. 제3국 협력 고도화 필요성

III. 제3국 협력 고도화 방안(지역/분야)

IV. 마치며..

협력의 방향, '제3국'

▪ 제3국에서의 협력은 양국 기업 협력관계 고도화의 중요한 축

- 1995년 한·일 양국 경제단체(전경련-경단련) 간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해 논의를 시작
- 2011년 이후 외교 당국, 한·일 경제인회의, 한·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양국이 자원개발, 인프라 수출 등을 통해 제3국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창조해가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제3국의 종합적 사회개발에 대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 앞으로도 제3국에서의 협업을 더욱 확대할 것.”
(2017.9, 49회 한일 경제인회의 보고서, 공동성명 中)

▪ 한·일 기업은 건전한 경쟁관계 속에서도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

- 한·일 기업은 각각 중국 등 다른 나라 기업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성과는 낮은 편
 - 2018년 일본기업이 중국기업과 함께 태국에서 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나, 좌초로 귀결
- 기업 문화의 유사성, 기술 및 경영관리 수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기업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시너지도 大
 - 한국기업은 빠른 의사결정, 효율적 생산관리, 범용기술의 경쟁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은 핵심기술, 자금력, 브랜드파워 등을 보유 → 상호 보완(win-win)관계가 존재

5

한·일 기업은 제3국 협력 성공경험을 既보유

▪ 한·일 기업 협력을 통한 제 3국 사업 추진은 성공사례가 다수

- 2011년 이후 주로 자원개발, 인프라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이 진행
 - 개도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플랜트 건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3국 공동 진출이 활성화
 - 일본기업이 수주 및 금융을 담당하고, 한국기업이 사업 실행을 담당하는 방식이 다수

한·일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 사례

한·일기업		주요내용	시기
삼성엔지니어링	미쓰이화학	인도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조공장 수주	2011년
한국전력	쓰미토모상사	중동 아부다비 발전소 건설 공동참가	2011년
한국가스공사	미쓰비시상사	인도네시아 LNG 생산기지 공동개발	2011년
대우건설	미쓰이물산	모로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2011년
현대중공업	미쓰비시중공업	사우디아라비아 화력발전소 수주	2012년
한국전력	미쓰비시상사	요르단 화력IPP 프로젝트 장기매입 계약	2012년
대림산업	소지쓰	베트남 오몽화력발전소 2호기 수주	2012년

출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6

제3국 협력의 '고도화'를 모색할 필요

▪ 오일, 가스 등 자원가격 약세로 협력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자원개발,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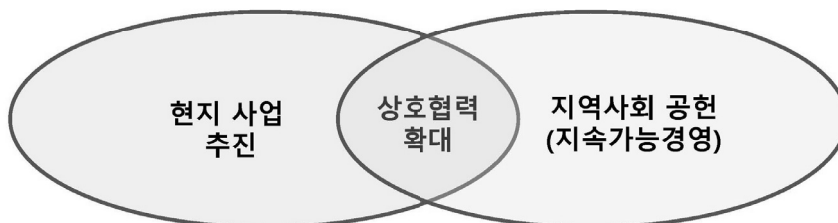
- 2013년 GS엔지니어링과 이토추 상사가 함께 한 터키 제휴소 플랜트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자원개발, 인프라 관련 협력 프로젝트 수주가 없는 상황

▪ 최근 선진국 경제가 부진한 가운데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

▪ 한·일 기업 간 협력 추진 '우선지역'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분야를 '다변화'하는 '제3국 협력 2.0'을 모색할 필요

- 성장성 높은 해외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동시에, 제3국의 종합적 사회개발에도 협력

한·일 기업 제3국 협력 지향점



7

〈 목 차 〉

I. 들어가며..

II. 제3국 협력 고도화의 필요성

III. 제3국 협력 고도화 방안(지역/분야)

IV. 마치며..

1) 지역: 부상하는 ASEAN 지역

▪ ASEAN 지역은 최근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활동을 강화 중인 한국과 지역 내 높은 영향력을 보유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접점

–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신남방정책'을 추진

- 신남방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
-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

– ASEAN에서 일본 및 일본기업의 영향력 大

- 일본은 對 ASEAN 국가 투자규모를 비롯해, 주요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1) 지역: 부상하는 ASEAN 지역

▪ ASEAN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 지리적 인접성, 저렴한 인건비 등 매력도 高

- 한일 기업의 Global Value Chain상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유망성도 보유

- '08~'18년 GDP의 연평균성장률(current price 기준): 인도네시아 10.6%, 라오스 12.5%, 미얀마 13.4%, 베트남 13.1% 등



GDP 추이(2008-2017), 개별국 통화(current price) 기준

단위: 십억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브루나이	23	17	19	23	24	23	22	18	16	17	18	-2.1%
캄보디아	41,968	43,057	47,048	52,069	56,617	62,220	67,740	73,423	81,242	89,604	98,887	8.9%
인도네시아	5,414,830	6,011,380	6,864,140	7,831,720	8,615,710	9,546,140	10,569,710	11,526,330	12,401,730	13,587,220	14,837,360	10.6%
라오스	47,603	49,673	58,867	70,257	81,610	93,868	106,797	117,252	129,279	140,749	154,332	12.5%
말레이시아	806	747	833	925	985	1,033	1,122	1,177	1,250	1,372	1,447	6.0%
미얀마	29,233	33,894	39,777	46,308	51,259	58,012	65,262	72,714	79,723	91,283	103,199	13.4%
필리핀	7,721	8,026	9,003	9,708	10,561	11,538	12,634	13,322	14,480	15,808	17,426	8.5%
싱가포르	274	282	327	351	369	385	399	423	439	467	491	6.0%
태국	9,707	9,659	10,808	11,307	12,357	12,915	13,230	13,743	14,555	15,452	16,318	5.3%
베트남	1,616,050	1,809,150	2,157,830	2,779,880	3,245,420	3,584,260	3,937,860	4,192,860	4,502,730	5,005,980	5,535,270	13.1%

출처: Oxford Economics, 2019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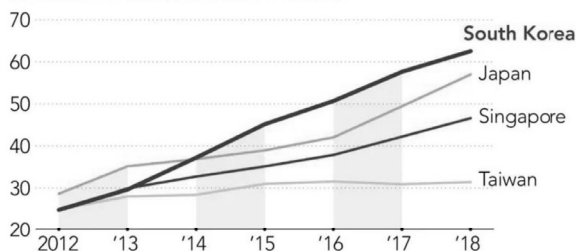
10

1) 지역: Top candidate 국가, 베트남

▪ 한국의 진출 시기가 ASEAN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고, 투자 수준도 일본에 버금가는 규모로 한일 기업간 대등한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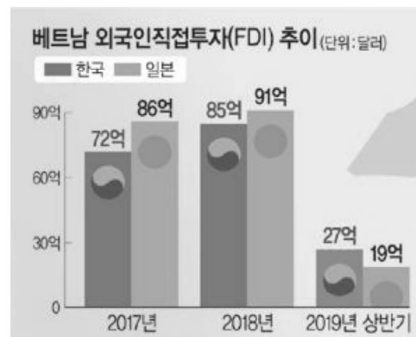
- 베트남 투자는 한국이 누계기준으로 최대 투자국이고 일본이 2위
- 최근 일본의 對베트남 FDI 투자는 한국의 투자를 상회

Major sources of direct investment in Vietnam (accumulated base, in billions of dollars)



Source: Foreign Investment Agency of Vietnam

* <https://asia.nikkei.com/Spotlight/Asia-Insight/South-Korea-banks-on-Vietnam-alliance-after-China-chill>



* 자료: 코트라, 국회예산정책처

11

1) 지역: Top candidate 국가, 베트남

- 특히 2014년 이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투자된 FDI Inflow 규모는 일본을 추월하거나 유사한 규모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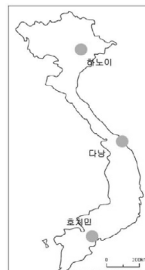
한일 양국의 베트남 FDI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본	1,155.50	181.3	1,051.90	1,247.60	2,862.90	2,365.20	969.2	955	1,338.90	3,580.40
한국	654.7	612.8	1,335.70	750.4	657.9	1,766.80	3,248.20	3,488.00	3,637.60	3,337.70

출처: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8, 12월

2-6. 주요 한국기업의 진출 상황



- 베트남 진출 기업수 : 약 3,900개사
- 과거부터 섬유·봉제, 신발 관련 기업도 다수 진출
- 최근 Samsung전자 등 대기업의 진출로 관련 기업이 다수 진출
- TPP, 한국-베트남 FTA에 대한 기대로 투자가 증가

북부(하노이 근교)

Samsung전자, LG전자, Hanil, Miwon 등

남부(호치민 근교)

Samsung전자, KIA, Hyosung, Kumho, Taekwang, Hwaseung, Changsin, LOTTE, Orion 등

2-6. 주요 일본기업의 진출 상황



- 베트남 진출 기업수 : 약 2,000개사
- 북부는 자동차, 오토바이 관련을 비롯한 세트 업체가 다수
- 남부는 전자 관련, 수출 가공, 내수용 식품가공 등이 중심
- 최근에는 이온, 미니스톱 등의 소매업의 투자가 증가

북부(하노이 근교)

캐논, 파나소닉, 혼다, 도요타, 야마하, 브리지스톤, 교세라 등

남부(호치민 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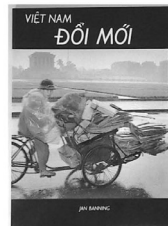
후지쯔, 올림푸스, 스즈키, 야치노모토, 규피, 닛산, 샤프로, 이온, LIXIL 등

출처: 베트남의 투자환경과 한일기업 진출상황_(2016)_한일산업협력재단

12

1) 지역: 베트남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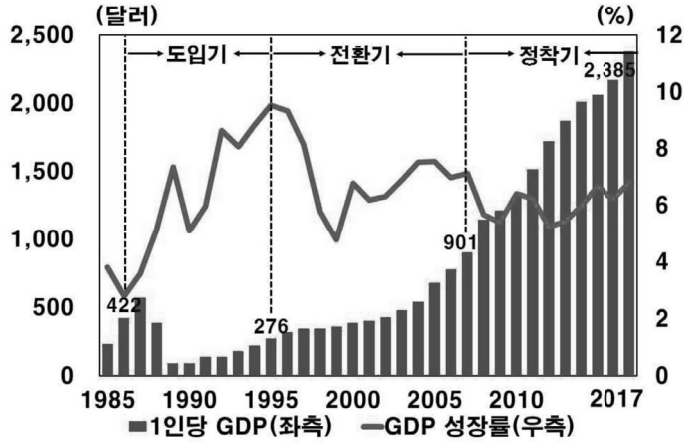
- 개혁개방 모델 도이머이('86)의 성공(ex. 도이, 바꾼다 + 머이, 새롭다 = 쇄신)
- 젊은 인구, 교육열, 국민성
 - 1억명 가까운 인구의 70%가 생산가능인구
 -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기지로 변신 중
- FTA 허브 국가로 각종 Trade Agreement의 중심
 - EU와 FTA('15.12)를 비롯, 2018년 12월 30일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발효
 - 한국(2015. 12), 일본(2009. 10), 칠레(2014. 1), 홍콩(2019. 1)
-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부존자원
 -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국과 육지/바다로 연결되고, 동북아와 동남아의 물류 연계 가능
-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양국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모색도 가능
 -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의 해결 등 기회가 다양



13

* 베트남 개혁개방 관련 자료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단계별 GDP 성장률 및 1인당 GDP1



*출처: 베트남 경제 개혁/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한국은행, '18.9.28)

도이머이 관련 정책

도입기(1986~94년) 주요 정책

- 외국 투자법 제정('87)
- 국가투자협력위원회 설치('89)
- 수출가공지역 설치 법안 마련('91)

전환기(1995~2006년) 주요 정책

- 미국과 국교 수립, ASEAN 가입('95)
- APEC 가입('98)
- 투자법, 통합기업법 제정('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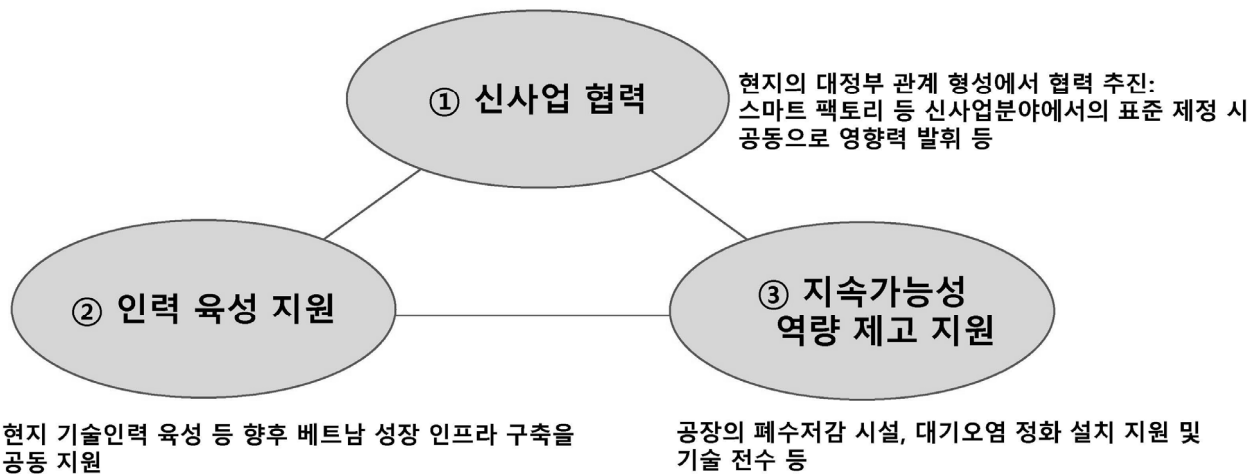
정착기(2007년~현재) 주요 정책

- WTO 가입('07)
- ASEAN-일본 FTA 발효('08)
- 베트남-한국 FTA 발효('15)
- 베트남-EU FTA체결('15)
(아세안 국가 중 최초)

2) 분야: 신사업 협력, 현지의 성장기반 구축 지원 등

▪ 다양한 형태의 협력 분야와 방식의 모색이 가능

- 제 3국 발주 프로젝트의 공동 수주 및 역할 분담, 제 3국 현지에서의 부품 공급 계약 등 기존 방식의 업그레이드 방안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협력 방식도 검토 필요
- 신사업분야 협력방안 모색 및 현지에서의 사업기반구축 등 Category에서 다양한 방식고려 가능



① 신사업 협력: 인프라/자원개발을 넘어선 신분야 발굴

- 제 3국 스마트 시티 개발 협력 등 신사업 분야의 규제 정비, 기술/산업 표준 수립 시 공동으로 기회 모색 등

예시: 아시아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능성

한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 신도시개발 경험, 전자정부, 교통망을 비롯한 IT 서비스 및 운영 경험 ❖ 환경/에너지 분야(저탄소 에너지화) 경쟁력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절감형 가전 등 에너지/환경 분야 강점 ❖ 스마트시티 에너지 분야 해외 실증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자정부 수준 '10년 이후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유지 • 전자정부 수출 실적 4.5억달러(2014) - 세계최초 ICT 기반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구축 • 국제교통포럼 우수사례 선정(2014) • 뉴질랜드 버스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 말레이시아 버스 결제 시스템, 콜롬비아 버스 단말기 수출, 태국 대중교통수단 컨설팅, 몽골 버스 토탈 솔루션, 코트디부아르 버스 요금 자동징수 시스템 등 수출 -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도로공사 알제리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우선협상자 선정('14.10), LG CNS 콜롬비아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스마트시티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가정용 배터리 사용', '전력/열의 통합 제어', '전기차 배터리와 가정의 상호 전기 공급' 등에 대한 노하우 구축 - 일본 내 실증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해외 진출 • 일본 신에너지산업 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스페인 말라가, 뉴멕시코, 하와이 등 외국 5개 지역에서 스마트 커뮤니티 실증 사업을 진행 중

(출처: 전경련, 다음 50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 산업협력 방안, 2015년 6월)

16

'제조업'의 제 3국 공동진출 관련 자료 출처: 한일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KIEP 2013, 김규판)

- (제조업 분야) 한.일 기업은 상호 보완관계, 개도국의 성장 활용, 국가 리스크 분담 등의 측면에서 제3국 공동 진출의 여지가 많음
 - 최근 제3국 공동 진출(전체 13건)은 대상지역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업종 역시 **철강, 전기, 산업용섬유, 자동차부품, 화학, 제당** 등으로 확산
- 특징
 - (시기별)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은 1992~96년(제1기), 2003~05년(제2기), 2008~현재(제3기)에 이르는 세 가지 시기로 구분
 - (국가별) 제1기 및 제2기에는 모두 중국에 공동진출 하였으나, 제3기(최근)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세계 확대
 - (업종별) 제1기에는 전자부품업종, 제2기에는 자동차부품업종, 제3기에는 철강, 화학, 자동차부품, 식료품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
 - (기업규모별) 한국기업의 경우 제1기 및 제2기에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공동진출 했으나, 제3기에는 일본기업과 대등한 역량을 가진 대기업 중심으로 공동진출이 이루어짐.
 - (유형별) 대부분 합작기업의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3기에는 일부 기존 진출기업에 대한 출자, 공동 수주 등 진출유형의 다양화가 진행
 - (목적별) 제1기에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진출, 제2기에는 주거래 기업과의 동반진출, 제3기에는 진출대상국의 경제성장애 따른 현지 수요확대에 대응이라는 특징을 보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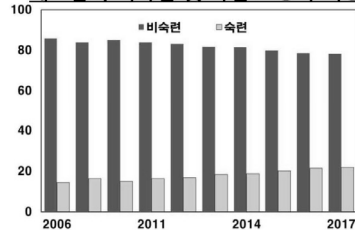
② '인력 육성'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지원

■ 제3국 현지 기술인력 육성 지원 및 기술대학 운영 등으로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

-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에서 **현대화된 산업국가 도약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직업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베트남 협력전략 2011~2015'도 직업교육훈련을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

- 베트남은 직업교육 투자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 비숙련 노동자가 높은 비중 차지 : 고등교육 및 직업전문훈련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킬 필요

베트남의 비숙련 및 숙련 노동자 비중(%)



주: 전체노동인구중 직업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청

- ASEAN에서의 기술인력 육성은 일본이 앞선 부분으로, 노하우를 전수받고 협력방안을 모색
- 토요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 공동 설치/운영 지원 등 추진
- 현지 청소년 교육과 고용의 연계 등

ASEANの産業人材育成ビジネスに関わる
進出日系企業のニーズと人材育成事例

2013年7月
日本貿易振興機構(ジェトロ)
海外調査部

18

③ '지속가능성' 제고를 지원

■ 폐수처리, 대기 오염 저감 등 관련 노하우의 공동 전수, 프로젝트의 공동 진행 등

-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 이슈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
- 美 상무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섹터로 환경 및 오염 통제 장비/서비스(Environmental and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Services)를 지목
- 관련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ODA (EDCF) 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시설 건설 등 사례의 모델을 차용

Việt Nam News.
THE NATIONAL ENGLISH LANGUAGE DAILY

Viet Nam News > Environment

ENVIRONMENT

Last update: 08/04 | 17:15/2018

★★★★★

HCMC faces alarming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industrial waste

Instead of signing contracts with waste treatment companies, many business households, production establishments and enterprises in HCMC have hired trucks to carry waste to sneakily dump into rivers, canals or places with few inhabitants to save costs. Meanwhile, sanctions as well as solutions to tackle the issue have proved ineffective.



Industrial waste sneakily dumped in a road in Vinh Loc A commune, Binh Chanh district

Illegal dumping of industrial waste causes pollution in northern province

Update: August, 17/2018 - 17:00



Last update: 08/30 | 08/04/2017

★★★★★

Vietnam seeking solutions to industrial waste

VietNamJet Bridge - Industrial waste dumped at landfills is causing significant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country. As Vietnam's economy grows, industrial waste disposal has become more of a challenge.



19

< 목 차 >

I. 들어가며..

II. 제3국 협력 고도화의 필요성

III. 제3국 협력 고도화 방안[지역/분야]

IV. 마치며..

마치며..

- 제3국에서의 한일 양국 기업 협력은 과거의 정형화 된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기회의 발굴로 도약이 필요한 시점
 -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한일 기업의 역할 변화, 양국 기업의 협력이 가능한 베트남 등 제3국의 최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
- 베트남에 진출한 한일 양국 기업이 스스로 협력방안을 찾고, 추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3자의 역할이 중요
 -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인 한일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협력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기 위한 대화 자체를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양국 현지 상공회의소 등 중재자 또는 이러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initiator 역할이 반드시 필요
- 한일/일한 경제협회의 역할을 적극 모색할 필요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한일경제인회의
서울 롯데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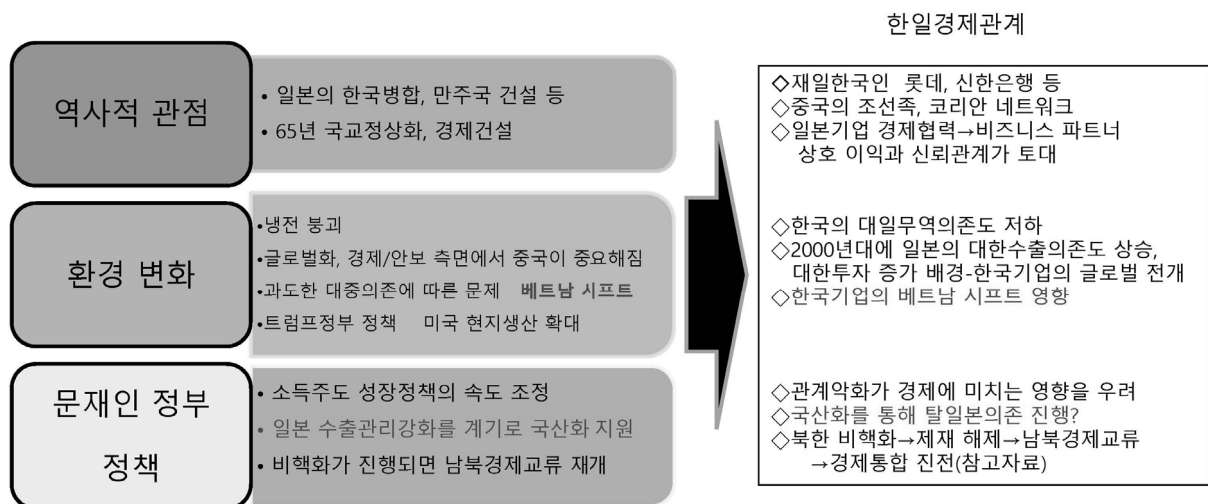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가, 한일 경제관계와 서플라이 체인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프트, 일본 수출관리 강화의 영향

일본종합연구소
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次世代の国づくり

Copyright (C) 2019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01/01

서론 한일경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次世代の国づくり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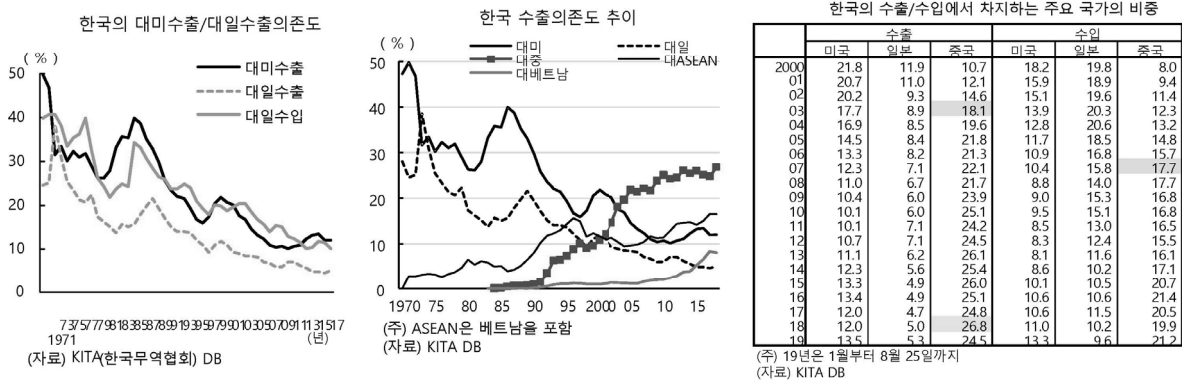
Copyright (C) 2019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01/01

한일관계의 주요 움직임

시기 구분	한일관계 관련	한국경제 동향	사회 기타
<1960년대> 수출공급화	65년 6월 한일국교정상화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등	67년 현대자동차 설립 68년 포항종합제철(현재 POSCO) 설립 69년 삼성전자 설립	「한강의 기적」
<1970년대> 중공업화	대일무역불균형 문제 부상 78년 수입선다변화품목제도 (사실 상 대일수입 제한)	73년 중공업화 선언 77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진출	새마을운동 72년 유신체제 79년 10월 박정희대통령 암살
<1980년대> 규제 완화	포스트 박정희체제의 대일외교 역사교과서문제 부상 플라자합의 후 일본의 대한투자 급증	석유파동 후 저성장, 외채 문제 86~88년 「3저」를 통한 고도성장 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87년 「민주화」 선언, 노동운동 활발화 88년 서울올림픽 89년 베를린장벽 붕괴
<1990년대> 재벌 거대화 구조개혁	92년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 (무역불균형 시정 목적) 97년 IMF위기 일본의 지원 98년 「한일파트너십」 선언 99년 6월 수입선다변화품목제도 철폐	금융실명제 실시 96년 OECD가입 IMF위기 후 구조개혁 99년 대우재벌 해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 92년 중국과 수교 한국에서 일본문화 개방
<2000년대> 글로벌화	02년 축구월드컵 공동 개최 03년 12월 한일EPA(FTA)협상 개시 04년 11월 한일EPA(FTA)협상 중단 05년 국교정상화 40주년 12년 이명박 대통령 특도(다케시마) 상륙 한일관계 악화 15년 11월 약33년만의 한일정상회담 12년 「위안부」에 관한 합의 17년 5월 문재인대통령 취임 투트랙 제장 18년 가을 이후 한일관계 악화	2000~02년 현대그룹 분열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1년 7월 한EU FTA잠정 발효 12년 3월 한미 FTA 발효 14년 6월 한중FTA에 정식 서명	일본에서의 한류 붐 「한일축제한마당」 시작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혐한 움직임 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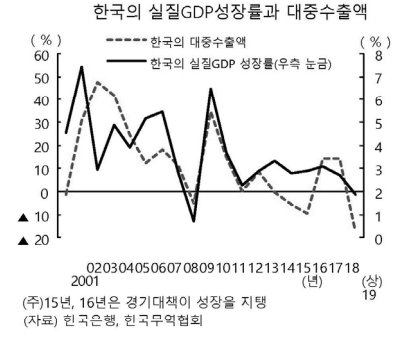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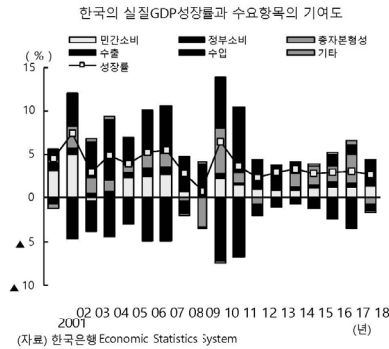
(자료) 각종 자료에서 작성

I -1 저하되는 한국의 대일무역의존도, 상승하는 대중무역의존도



- ◇ 냉전체제기
경제적 측면-대미 및 대일의존도 안전보장 측면-한미상호방위조약
- ◇ 북방외교, 냉전체제 붕괴
한중 수교 (92년)
경제적 측면-무역상대국 다양화
- ◇ 2000년대 경제 글로벌화
중국의 고도성장
중국이 경제와 안보측면(대북)에서 중요한 존재로
⇒ 일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

I-2 2000년대에 중국의 영향력 증대, 최근에는 차이나 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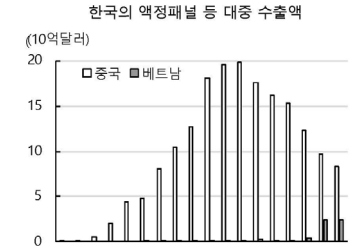
◇2000년대 한국경제 연평균 4.4% 성장
 • 기업의 글로벌 전개⇒수출(과 설비투자)주도형 성장
 • 중국이 최대 수출상대국으로⇒중국영향을 받기 쉬움

◇차이나 쇼크
 ①뉴노멀 이행에 따른 중국경제 감속
 ②중국의 캐치업⇒수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제조2025」반도체 자금률을 20년까지 40%로
 ⇒과도한 대중의존 시정이 과제로
 중요성이 커지는 베트남, 확대되는 미국에서의 사업

한국의 대중 상위 수출품목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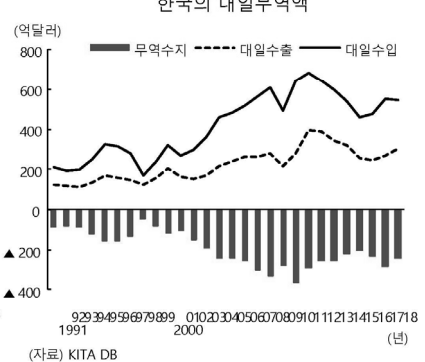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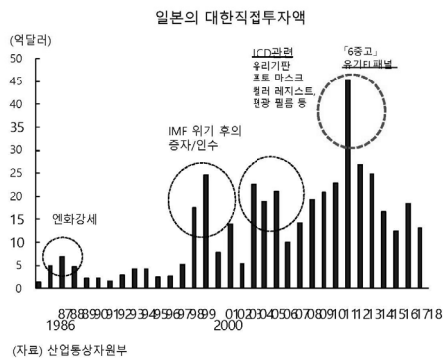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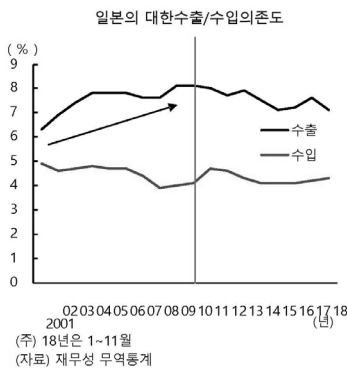
품목
1 집적회로 (8542)
2 완식반도체 (2902)
3 석유, 액정유 등 (2710)
4 집적회로/디스플레이장치 제조기계 등 (8486)
5 LCD 등 (9013)
6 전화기, 휴대전화, 무선전화 (8517)
7 TV, 라디오, 레저 등 부품 (8529)
8 비완성반도체 (2901)
9 에틸렌 중합체 (3901)
10 광섬유/동케이블, 광섬유케이블 시트(9001)

*자료(KITA DB)



次世代之国づくり

I-3 2000년대에 일본의 대한수출의존도 상승, 현지생산 움직임도



【2000년대에 주목하고 싶은 점】

- (1) 일본의 대한수출의존도 상승
2001년 6.3%⇒10년 8.1% 한국기업의 글로벌 전개⇒일본의 대한생산재수출 증가
- (2)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증가
현지생산의 장점(생산비용 절감, 고객사에 대한 신속한 공급, 고객사와 공동개발, 환율리스크 헤지 등)

일본기업의 현지생산⇒일본의 대한수출 감소
 일본기업의 제3국 생산⇒제3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일기업간 서플라이 체인이 한일의 틀을 넘어섬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제3국에서 공동사업

次世代之国づくり

I-4 한일무역-상호간에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한국의 대일 상위 수출입품목 (2018년)

한국의 대일 상위 수출품목		한국의 대일 상위 수입품목	
HS코드	품목	HS코드	품목
1 2710	석유제품	8486	반도체물,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유기 (제조장치)
2 8542	집적회로(프로세서, 메모리 포함)	8542	집적회로(프로세서, 메모리 포함)
3 8708	자동차부품	7208	열간압연평강제품(철, 비합금강)
4 7208	열간압연평강제품(철, 비합금강)	7204	철강 슬러그, 철강 재용해용 인고트, 철 슬러그 등
5 7106	실버	3920	플라스틱제 기타 패널, 시트, 필름 등
6 8486	반도체물, 반도체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기기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성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 발광 다이오드, 압전결정소자
7 7210	평강제품(클래드강, 도금, 피복한 것)	2707	고온 콜타르 증류물, 방향족성분 중량이 비방향족성분 중량을 초과한 것
8 8517	전화기, 휴대전화, 무선전화	8703	승용차, 스테이션 왜건 등
9 854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성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 발광 다이오드, 압전결정소자	3824	주물용 거푸집 조제점결제, 중자 조제점결제
10 7219	스텐리스강 평강제품 (폭600mm이상)	3818	원소를 전자공용용으로 도핑처리한 것, 화합물을 전자공용용으로 도핑처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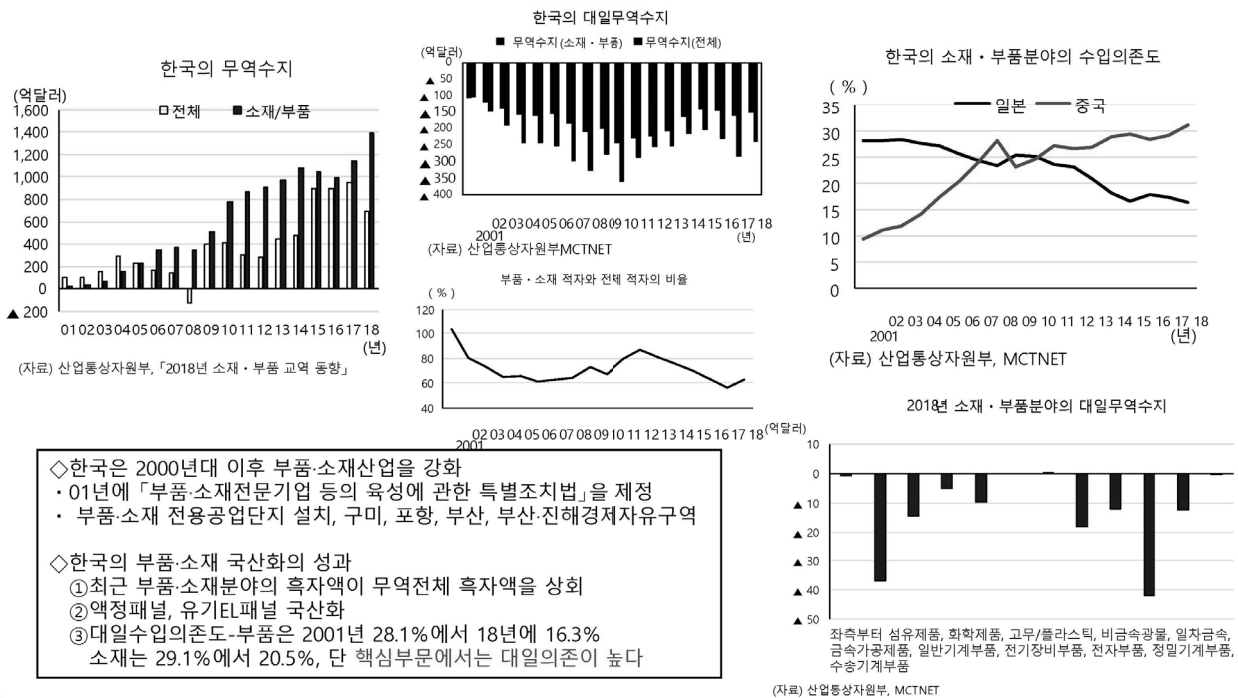
(자료) KITA DB

次世代之国づくり

7

Copyright (C) 2019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01/01

I-5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로 인해 부각된 것



次世代之国づくり

8

Copyright (C) 2019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01/01

II-1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보는 한일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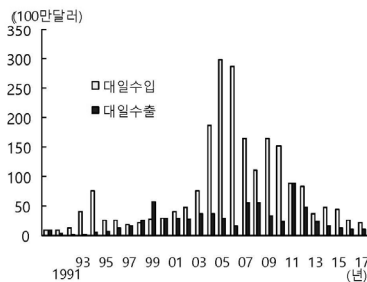
- (1)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
- 비교우위 변화 및 직접투자⇒서플라이 체인 변화
 - 기타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 통상정책, 환율, 현지기업 부상, 생산비용 등
- (2) 한일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변화

원형 일본(일본기업)에서 한국(한국기업)으로 수출

유형	서플라이 체인 변화	일본에 미치는 영향
제1유형	일본의 공급자가 한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해당물품의 수출감소/중간재 · 고품질품 수출
제2유형	일본의 공급자가 제3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해당물품의 수출감소/중간재 · 고품질품 수출
제3유형	한국의 최종재 제조사가 제3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해당물품의 수출감소/제3국에 대한 수출증가
제4유형	최종재 제조사와 공급자가 제3국으로 시프트	해당물품의 수출감소

II-2 수출에서 현지생산으로, 국산화 진행

패널용유리 관련 대일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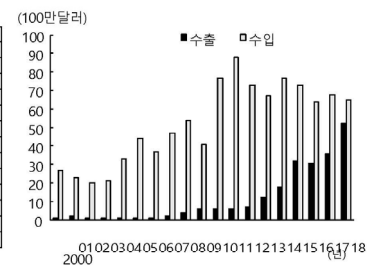
(주) H스코드 7005 플로트패널유리, 마판유리
(자료) KITA DB

액정패널 관련 외국기업 투자

외국기업명	입주연도	소재지	분야	생산제품
메르쿠사	2002.	경기도 평택	LCD	액정혼합물
치소사	2005.	경기도 평택		오버 코트, 배향막
스미토모화학	1998/2002.	경기도 평택		컬러 레지스트, 컬러 필터
NHT	2005.	경기도 평택		유리기판
HOYA	2005.	경기도 평택		포토마스크
닛폰전공	1999/2004.	경기도 평택		편광필름
일본전기유리	2005.	경기도 파주		유리기판
Photronics(PKL)	1993.	충남 천안		포토마스크
JSR	2003.	충남 오창		컬러 레지스트
센트럴유리	2005.	충남 오창		PDP
도시바(해리슨)	2003.	충남 오창	LCD	CCFL
아사히글라스	2004.	경북 구미	LCD, PDP	유리기판
3M	1996/2005.	경기도 화성	LCD, PDP	광학필름, 열관리 필름

(주) 색상표시된 것은 일본계 기업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탄소섬유류 대일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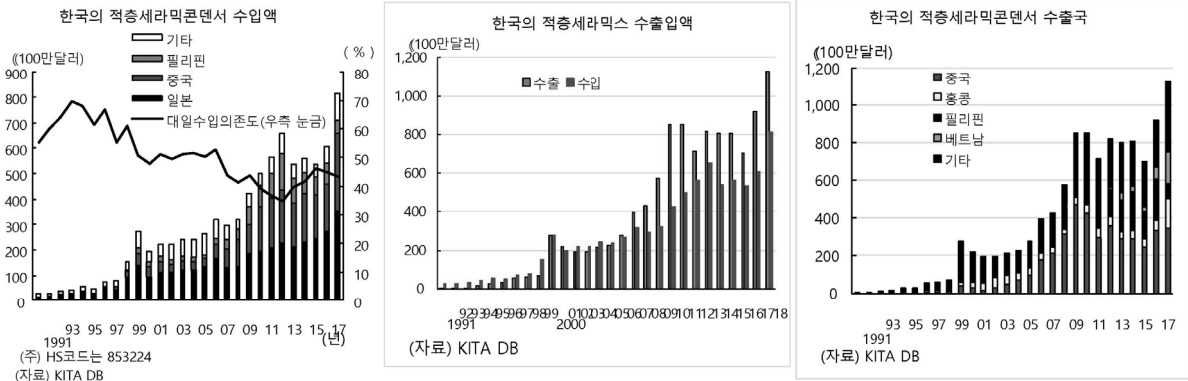


(주) H스코드 6815, 울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 탄소섬유 제품, 이만제품
(자료) KITA DB

- 2000년대 전반, 한국에서 액정패널 생산 확대에 따라 대일 액정패널용 유리 수입이 급증
- 그 후 액정패널 관련분야에서 일본기업에 의한 현지 생산이 확대, 컬러 필터 및 패널용 유리 국산화가 추진
- 단, 제조장비와 핵심소재 등의 대일수입은 지속됨

- 2000년대 전반까지 탄소섬유는 거의 수입. 그 후 국산화가 진행
- 도레이첨단소재
주요사업은 복합재료(탄소섬유 포함), 필름, IT소재, 부직포, 수지사업 등이며 특히 주력은 탄소섬유
13년에 탄소섬유 생산을 개시.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도 수출
- 그 후 한국의 효성과 태광 등이 생산 개시

II-3 한국에서 국산화 - 일본 공급처, 제3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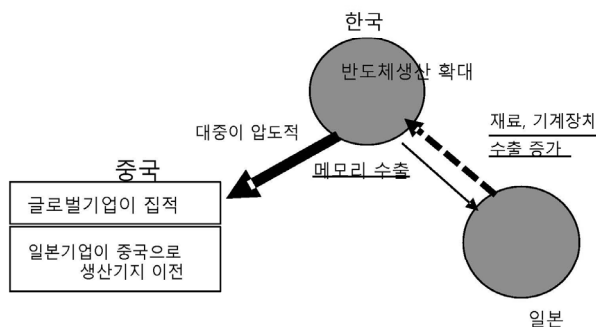
- 적층세라믹콘덴서는 세라믹 유전체와 금속전극 다층화를 통해 소형/대형화를 도모한 칩형콘덴서로,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 최근에는 차량탑재용 증가.
- 초기 주요 제조사는 무라타제작용과 타이요유덴 등 일본기업. 그 후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생산 개시
- 타이요유덴은 99년에 한국경남 태양유전을 설립
- 무라타제작용은 94년엔 중국 우시(無錫), 12년 필리핀에 자회사
- 대일수입액 증가기조 지속(소형이며 대용량). 한편, 중국(한국 기업도 중국에서 생산)과 필리핀 등으로부터 수입 증가

- 한국의 수출액도 증가
- 수출은 전자기기 산업이 집적화된 대중과 대필리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대베트남이 증가
- 2018년 상위 수출국
 ①중국, ②베트남, ③홍콩, ④독일, ⑤말레이시아
 ⑥필리핀(17년에는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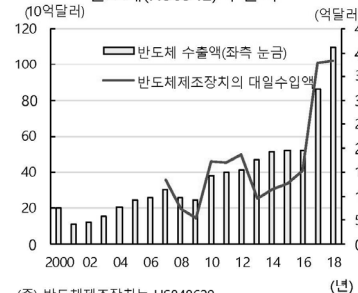
次世代之国づくり

II-4 반도체산업 동향 - 한국의 반도체생산 확대와 일본의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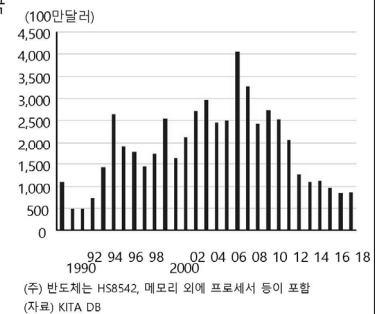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움직임



반도체(HS8542)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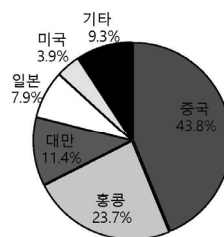
한국 반도체의 대일수출액



2개의 힘이 작용

- ◇ 한일관계를 긴밀화시키는 움직임
 한국의 반도체생산 증가 ⇒ 일본의 재료, 제조장치 수출 증가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사는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
- ◇ 한일관계에서 이탈하는 움직임
 일본 반도체 유저들의 중국 시프트
 ⇒ 한국의 대일 반도체 수출 감소

2010년 한국의 메모리 수출국



(자료) 한국무역협회

次世代之国づくり

Ⅲ-1 한국기업,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

삼성그룹의 베트남 진출

	생산시기	생산품목	투자액 (억달러)	종업원 (천명)
삼성전자	SEV(박닌성)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기기 등	30	80
	SEVE(타이응웬성)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기기, 디지털 액세서리 등	50	40
	SECC(호지민시)	가전제품	14	20
삼성SDI(SDIV, 박닌성)	2010.07	휴대전화용 배터리	1.2	1.5
삼성전기 (SEMV, 타이응웬성)	2014.08	휴대전화용부품, 카메라 모듈 등의 전자부품	12.3	10
삼성디스플레이 (SDBN, 박닌성)	2015.03	디스플레이	30	9

(자료) 주대영, 베트남의 국제가치사슬(GVC) 거점 부상과 한국 전자업계의 대응 p.74에 약간 추가

LG그룹 하이폰시

- ◇LG전자
15년 TV, 스마트폰, 세탁기 등 생산 개시
- ◇LG디스플레이
17년 TV·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생산 개시
베트남 외에 중국으로도 수출
- ◇LG이노텍
18년 카메라 모듈 생산 본격화
- ◇LG전자
19년 베트남을 스마트폰 주요 생산기지로 만들 계획

한국의 수출상위 10개국·지역

2010년			2018년		
1	중 국	1,168	중 국	1,621	
2	미 국	498	미 국	727	
3	일 본	282	베트남	486	
4	홍 콩	253	홍 콩	460	
5	싱가포르	152	일 본	305	
6	대 만	148	대 만	208	
7	인 도	114	인 도	156	
8	독 일	107	필리핀	120	
9	베트남	98	싱가포르	118	
10	인도네시아	89	멕시코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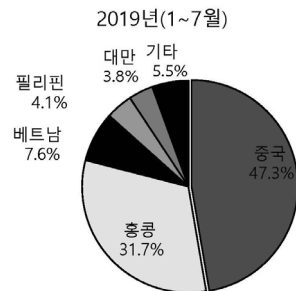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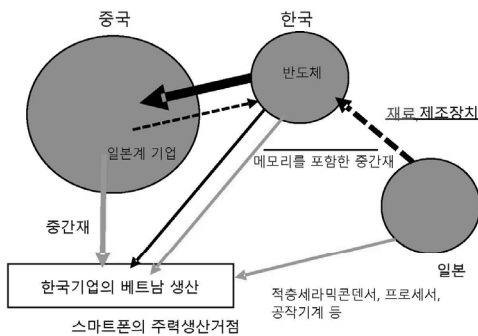
(자료) KITA DB

- ◇베트남은 한국에게 제3위의 수출상대국
· 대베트남 수출의존도는 19년(1~7월)에 8.6%
· 한국기업의 생산확대에 따라 한국에서 중간재 수출증가
- ◇최근에는 중소 공급자가 진출
- ◇제조업 외에도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진출 증가를
배경으로 중간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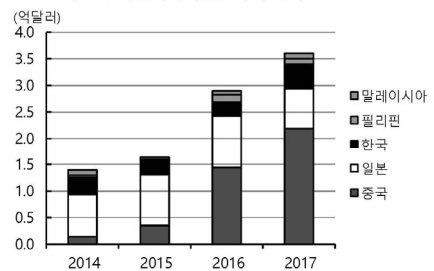
次世代之国づくり

Ⅲ-2 변화하는 서플라이 체인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움직임



베트남 적층세라믹콘덴서 수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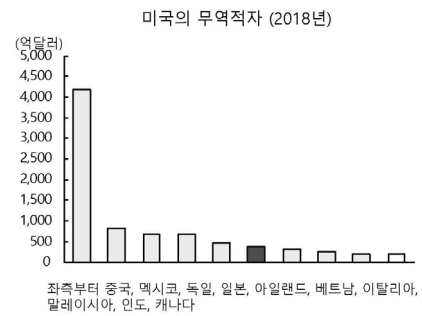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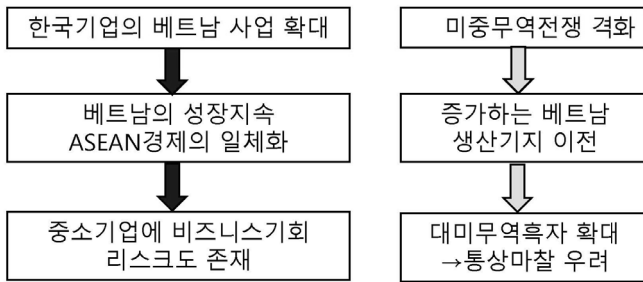
한국의 대베트남 상위 수출입 품목 (2000년, 2018년)

상위 수출품목(2000년)		상위 수출품목(2018년)	
HS코드	품목	HS코드	품목
1 5903	방직용 섬유 의 직물류	8542	집적회로 (프로세서, 메모리 포함)
2 5407	합성섬유의 장섬유사 직물	8548	1차전지 등
3 2710	석유, 석유, 석유, 석유 조제품, 폐유	8517	전화기, 휴대전화, 무선전화 및 부분품
4 8704	화물자동차	9013	액정디바이스, 레이저, 광학기기
5 6406	신발류/신발 부분품과 부품 등	2710	석유, 석유, 석유 조제품, 폐유

(자료) KITA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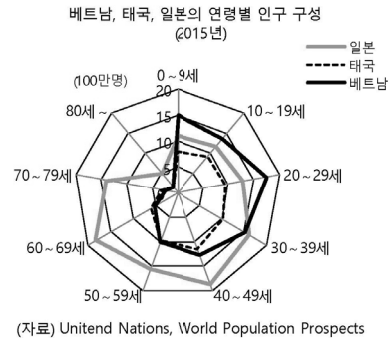
次世代之国づくり

Ⅲ-3 베트남에서 한일협력 가능성



(자료) U.S. Census Bureau 19년 3월
한국기업의 투자증가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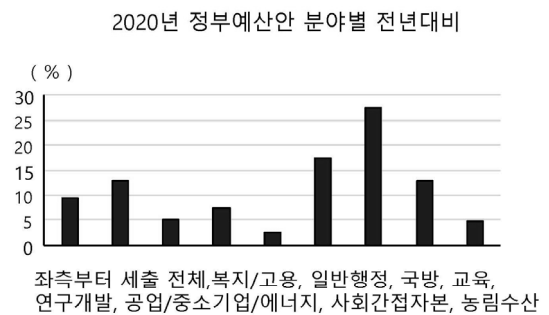
-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력
- 자유롭고 열린 경제권 구축
- 인프라 구축
 - 산업 집적화
 - 거래 매칭
 - 인재 육성
 - 한일 중소기업의 공동진출



次世代之の国づくり

Ⅲ-4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를 계기로 한 한국의 국산화 강화

- ◇한국 정부의 국산화 및 연구개발지원 강화
- 8월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개별허가제가 된 3품목을 포함한 100품목을 전략적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7년간 7조 8,000억원을 지원하여 국산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 이 중 3품목을 포함한 20품목은 1년 내로 공급 안정화 (제3국 조달도).
- ◇본격화되는 국산화 지원 국제분업과의 균형
- 정부에 의한 재정 지원
 - 대학과 연구기관에 의한 기술지원 강화
 - 독일 화학업계와 협력관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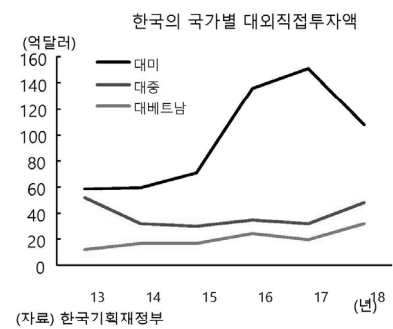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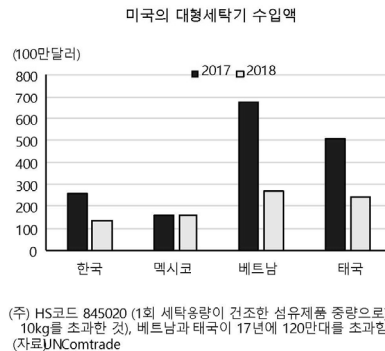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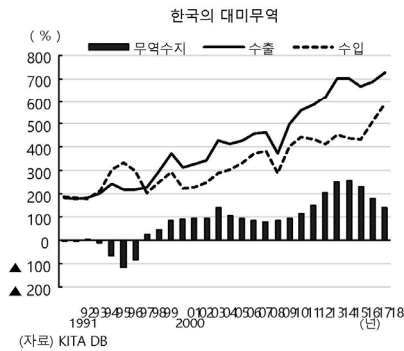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 ◇일본 공급자 입장에서는 고객 상실 우려
- ◇일본 공급자들 중에서 국산화 및 제3국을 통한 수출 등 협력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 서플라이 체인 변화

- Ⅲ-3 Ⅲ-4에서 도출된 향후 과제
- ① 한국기업의 베트남 시프트 → 베트남을 무대로 한 한일간 다각적 협력 가능성
 - ② 한국의 국산화 강화 → 한일관계의 새로운 협력관계 모색
- 이 외에 일본에서는 한일기업의 관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次世代之の国づくり

참고자료1 한국의 대미경제관계①



- ◇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되는 무역불균형 시정 압박
 - 한미FTA 발효(12년 3월) 후 미국의 적자 확대
 - 단 최근 감소 경향, 자동차의 수출 부진이 주요 원인
 - 19년 한국의 대미수출은 비교적 견조한 추세
- ◇ 18년 동향
 - 1월 미국 통상법 201조 세이프가드 발동(대형세탁기와 태양광패널)
 - 1월 한미FTA 재협상 개시
 - 3월 한국은 철강 추가관세가 유예된 한편, 수량(과거3년간 수출량 평균의 70%), 또한 한미FTA에서 합의된 2021년의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연기(41년), 안전/환경기준 완화, 환율개입 투명성 향상 등을 수용하기로
- ◇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향방에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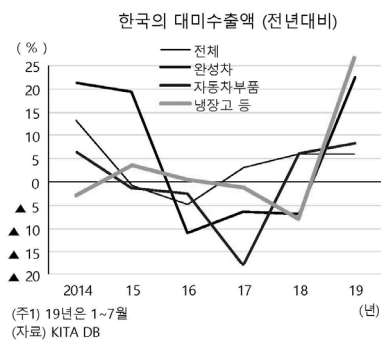
최근 한국기업에 의한 주요 대미투자

기업명	연월	투자내용	투자금액
삼성전자	17년 3월	자동차전장기업 허먼을 인수	약80억달러
	18년 1월	세탁기공장 가동 (남캐롤라이나주)	약3억8천만달러
SK종합화학	17년 2월	에틸렌아크릴산 공장 인수	약3억7천만달러
한국타이어	17년 10월	타이어공장 가동 (테네시주)	약8억달러
CJ제일제당	19년 2월	미국의 농통식품기업을 인수	약17억달러
롯데케미칼	19년 5월	석유화학공장(세일가스필름) 준공 (루이지애나주)	약31억달러
SK이노베이션	19년 3월	자동차용 배터리카공정 가동(조지아주)	약17억달러
LG전자	18년 9월	배터리 및 전기자동차부품 생산 공장 가동	2,500만달러
	19년 5월	세탁기공장 가동 (테네시주)	약3억6천만달러

(자료) 각종 보고를 보고 일본종합연구소가 작성

次世代之国づく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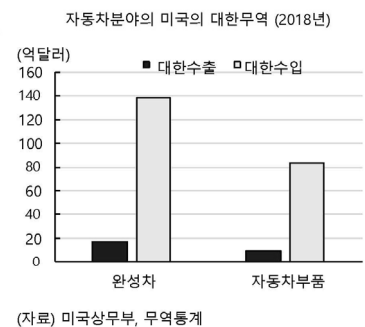
참고자료2 한국의 대미경제관계②



대미수출 상위 10품목 (2018년)

순위	HS코드	품목	금액(100만달러)
1	8703	승용차, 자동차, 스테이션왜건, 레이싱카	13,624
2	8517	전화기, 휴대전화, 무선전화	5,474
3	8708	자동차 부품, 부분품, 부속품	5,074
4	8473	제8469항에서 제8472항까지의 기계부품	4,643
5	2710	석유, 역청유, 석유 조제품, 폐유	3,591
6	8542	집적회로	1,457
7	8471	자동데이터처리기계, 유닛, 자기식 리더기, 광학식 리더기, 부호화된 데이터 처리 기계	1,418
8	4011	고무제 공기타이어	1,297
9	8507	축전기	1,158
10	8418	냉장고, 냉동기, 냉장기기, 냉동기기, 히트펌프	1,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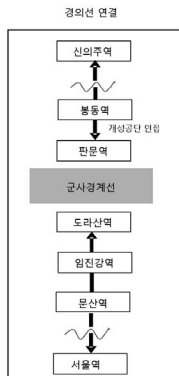
(자료) KITA DB



- ◇ 19년(1~7월) 한국의 대미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
자동차부문의 회복이 기여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생산이전효과(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했던 대형냉장고를 한국에서 생산)도
- ◇ 한미FTA 재협상에서 자동차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은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그 적자액이 무역적자액에 거의 필적했기 때문.
대미통상마찰은 일단 해소된 감이 있지만 트럼프정부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할 필요

次世代之国づくり

참고자료3 북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①



(주) 한국국에서 통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산역까지
(차도) 일본중합연구소 작성



경제교류가 재개될 경우

- (1) 철도·도로의 재연결을 포함한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 조업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 추진
- (2) 한반도 신경제지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화

함동해권...원산, 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환서해권...수도권, 개성, 해주, 평양, 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교통 벨트
 국경지역...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통일경제특구를 잇는 환경·관광벨트

【목적·목표】

- ①한반도 경제통합 추진→미래 통일비용 감소
- ②동북아 경제통합으로 이어지도록, 철도연결→한국과 중국, 러시아를 철도로 연결⇒국제물류망 구축
- ③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次世代之国づくり

참고자료4 북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③

◇남북경제교류 재개⇒비즈니스 기회

- ①중단된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개성공단에는 중소기업이 관심
- ②남북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철도·도로의 재연결, 서해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등)추진
- ③한반도 신경제지도에 관한 사업 시동

◇향후 주의점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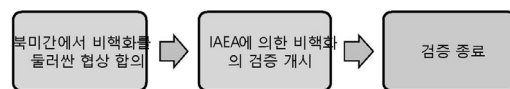
- (1) 경제교류 재개에는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가 전제
문재인정부의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에 미국은 경계
- (2)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북한측의 노후화된 철도 개보수에 거액의 자금
 -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
 - 국내자금만으로는 부족⇒국제기관의 용자와 주요국가의 원조·융자
 - 아시아개발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의 용자와 기금을 이용
하게 되는데 충족시켜야 할 조건(북한의 국제기관 가입, 재정상황 공개,
금융제도 정비 등)이 많다
- (3) 재정부담 증가에 따라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손상될 우려
 - 소득주도성장정책, 경기대책, 남북경제협력사업

한반도신경제비전의 한국에 대한 파급효과 (2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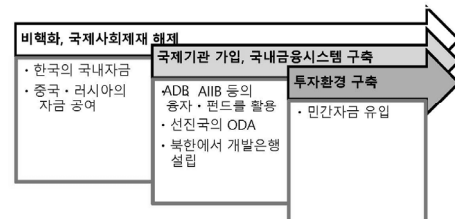
	생산유발액(억원)	고용유발(명)
자동차	93,867	30,681
철강	47,130	9,333
기계	54,622	21,546
ICT가전	130,220	36,478
석유화학	73,737	17,763
섬유	24,258	12,723
합계	423,833	128,522

(자료) 최남석, 한반도 새경제 비전의 국내제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2018년 5월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작성

예상되는 비핵화 프로세스



인프라 구축 자금원



(자료) 일본중합연구소 작성

次世代之国づくり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2019-9-24

한일관계: 최근의 움직임과 今後의 과제

동서대학교 총장
장 제국 (張濟國)

1

Contents

- 최근의 움직임
- 심각한 양국여론
- New Normal 시대
- New Normal에 대한 반발
- 한일관계를 보는 시각차
- 금후의 과제: 새로운 한일관계 인프라 구축의 모색

2

최근의 움직임

- 2015.12 한일위안부합의
- 2017.12 한일위안부합의 T/F 검토결과보고서
 - “피해자중심” 접근의 결여
 - 비밀협상의 한계
 -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 (2018.11)
- 2018.10 징용피해자 대법원 판결
- 2019.6 한국정부, 한일기업 공동 기금 조성안(1+1)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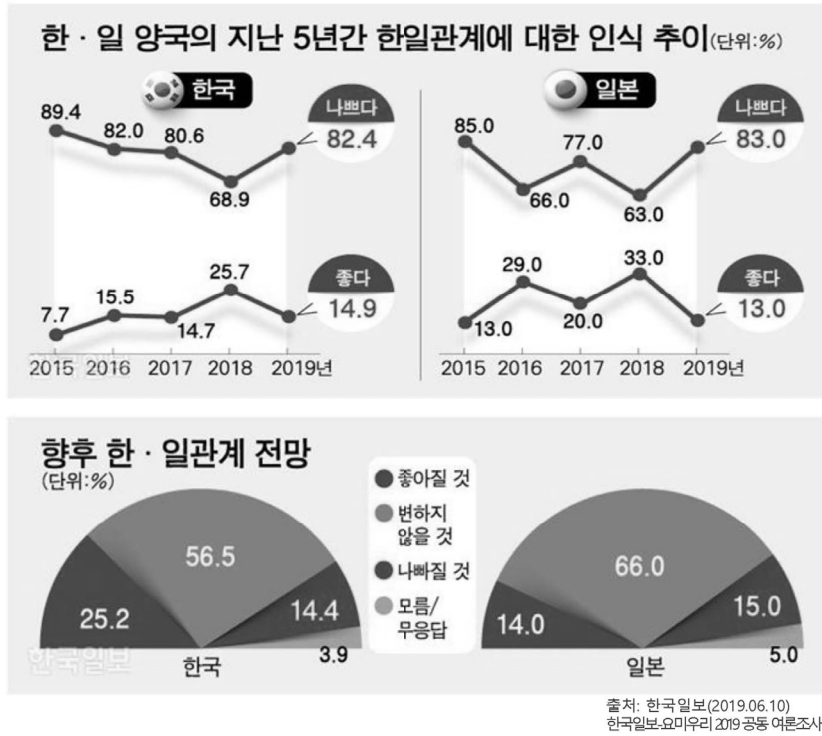
3

최근의 움직임

- 2019.7.4 일본정부, 3개 품목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이드 폴리이미드 등)
한국 수출 규제강화조치 실시
- 2019.8.22 한국정부, GSOMIA 종료 발표
- 2019.8.28 일본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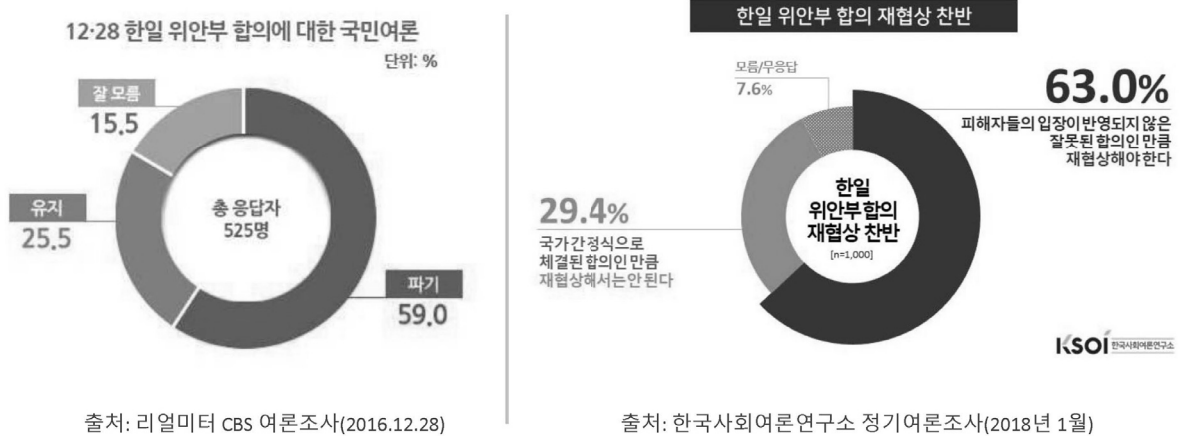
4

심각한 양국여론



5

심각한 양국여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6

심각한 양국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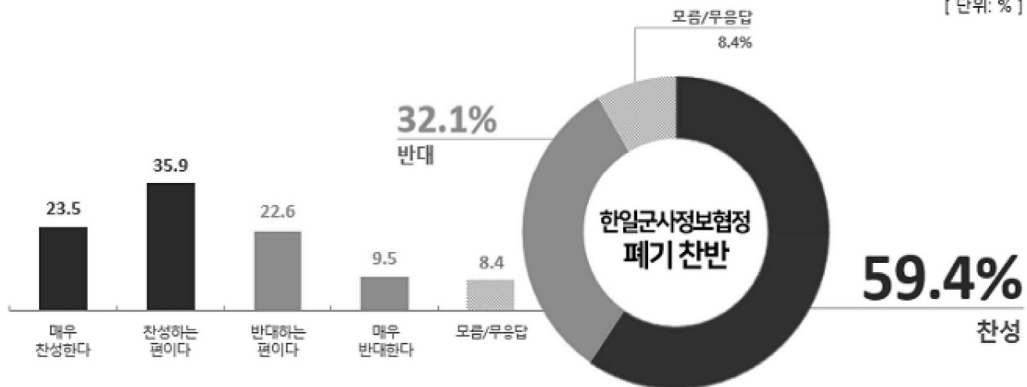
출처: 리얼미터 YTN 현안조사(2019.7.26)

심각한 양국여론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 찬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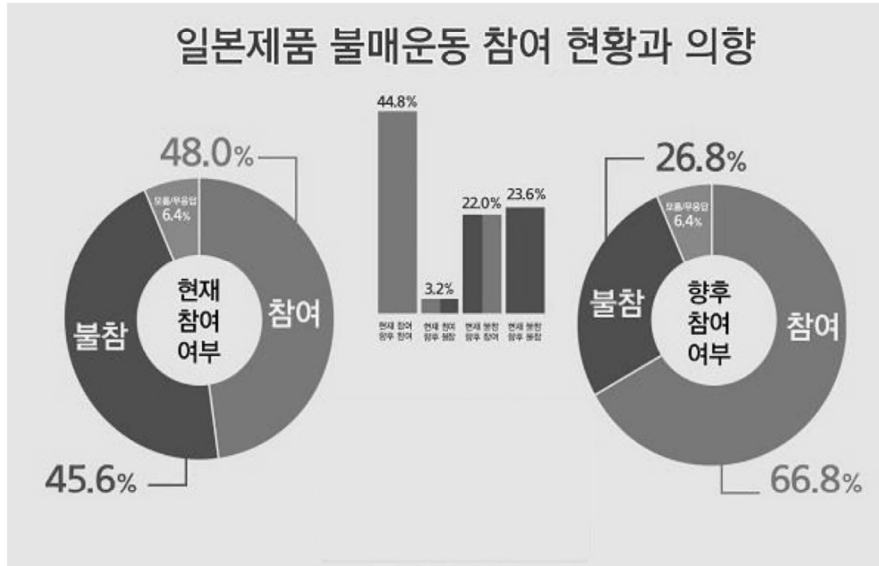


조사기간: 2019.07.26 - 27.2일간 / 조사지역: 전국 /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방법: 유선전화형 정치영향조사 / 피조사자성명방법: 유선전화조사(1.0%) / 무선전화조사(79.0%) / 무선-ADDD 생생 / 설문율: 1.01명 / 응답률: 21% / 신뢰수준: ±1.7%p / 가중치: 평균 및 적용방법: 2019년 6월 및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가중 / 응답률: 8.2% / 유선전화조사: 6.2%, 무선전화조사: 8.2%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조사(2019년 7월)

심각한 양국여론



출처 : 리얼미터 TBS 현안조사(2019.7.10)

최근 한일관계를 표현하는 키워드

- 불신
- 비외교적 표현의 난무: "일본의 建前가 그림다"
- 이데올로기
- 국민감정의 악화 - 불매운동, 일본 안가기 운동
- 처정부 헤아림 (村度)
- 한미일 공조의 붕괴

New Normal의 時代

개성강한 지도자 시대



D. Trump

V. Putin

B. Johnson

J. Xi

R. Duterte

Populism 만연: 국내정치 최우선 현상

실시간 상대국 기사의 전파와 즉각적인 반응



(Yahoo Japan)

11

New Normal의 時代

SNS 파워와 전파력

- Twitter 정치



국익 vs. 국익: '정치 지도자 개인이 생각하는 국익'

- 무례의 외교, 거침없는 외교, 예측불허의 외교
- "한국은 신뢰를 잃었고, 일본은 예의를 잃었다"
「韓国は信を失い、日本は礼を失った」(田中均、『論座』、2019-8-27)

전문가 조언보다는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더 중요한 시대

- Rational Choice vs. Rational Choice

12

New Normal의 時代

미중 대결과 평가하기

- 중국의 대두와 Thucydides' Trap
- 미국의 대중 견제

저성장 시대

- "The postwar miracle is over." (Ruchir Sharma)
- "Slow trade risk" (深川由起子)

New Business Model의 대두

- 공유경제 : Uber, AirBnB...
- New Brands : Amazon, Google, Facebook, Tesla, Alibaba...
- 기술혁신 : 자동운행 자동차, 전기자동차, 안면인식, Big Data, AI...

13

New Normal의 時代

개인력의 시대 (Powerful Individuals)



Bill Gates Steve Jobs Elon Musk Jeff Bezos Mark Zuckerberg Sergey Brin Jack Ma

Attempted New Normal



문재인 정부

- 한반도 평화구상
- 평화경제

아베 정부

-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
- 헌법개정

14

그럼에도...

New Normal과 공존하는 현실

여전한 20세기형 냉전구조 in 동북아시아

- 남북대치상황 (휴전상태)
- 북한 핵문제/미사일 문제
- 일본인 납치문제
-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 미국과의 동맹: 한미동맹, 미일동맹

15

그럼에도...

New Normal과 공존하는 현실

여전한 20세기형 경제모델에 대한 기대

- “제조업 신앙, 안행 형태 사고, 대미 파트너십의 우열”(深川由起子)
- Traditional Big Names의 고집:
특히 韓日의 경우, Powerful business individual 등장 어려움
- 기득권 경제모델의 반발
- 공유경제형 비즈니스 모델의 진입규제: 택시업 등

여전한 입법과잉과 과잉규제

- 시민단체의 국회의원 평가 – 법안발의 件數
- 기득권 세력의 입법 로비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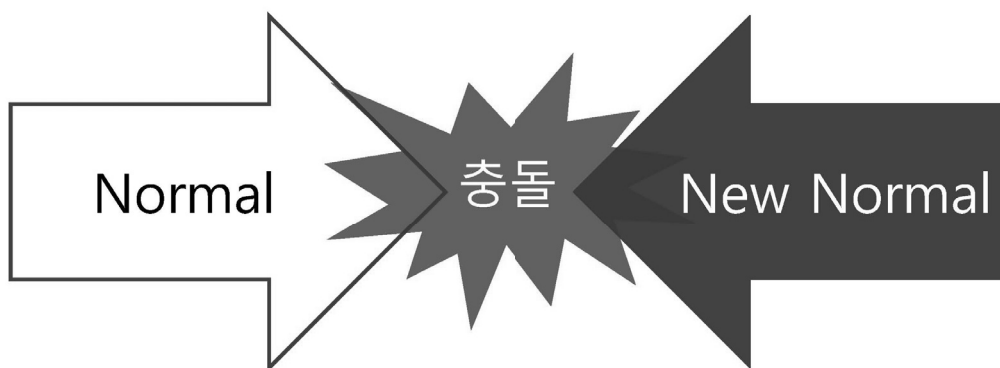
그림에도...

New Normal과 공존하는 현실

여전한 식민청산 문제

- 위안부문제
-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 문제

17



Unstable World

18

한일간의 시각차

피해자로서의 권리

한국

영원한 피해자, 도덕적 우위,
아직도 남아있는 권리
(징용자 판결 = 남은 권리의
사법적 확보)

Vs

소멸한 권리

일본

골대를 옮기는 한국

가슴

한국

피해 당사자의 납득이
없으면 국민정서에 맞지
않음. "피해자 중심주의"
-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

Vs

머리

일본

국가간 합의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더라도
지켜져야

19

한일간의 시각차

■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된 한국의 정치과정

- 촛불집회와 탄핵
- 신고리원전 5, 6호기 재개여부결정 = "숙의민주주의" (공론화위원회)

■ 일본의 "전후 체제로 부터의 탈피"

- 과거사로 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체제로의 이동

20

한일간의 시각차

■ 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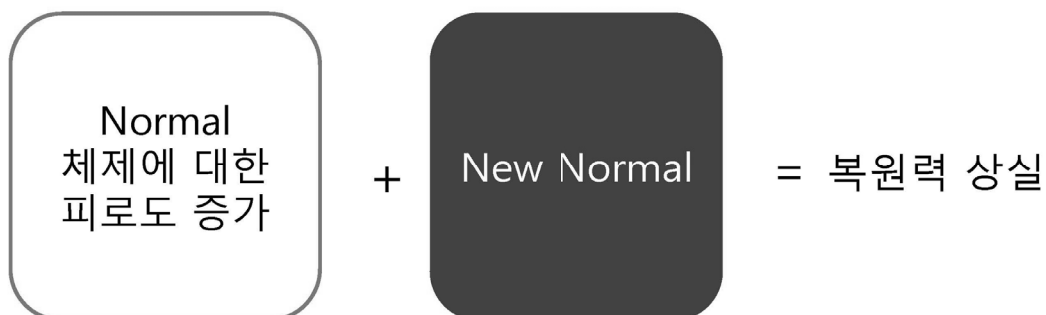
- 한국 대법원 징용자 관련 판결
 -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
 - "한일병합은 불법이다"

= 삼권분립의 원칙. 해결방안의 어려움
- 일본, 65년 체제의 부정은 국제법 위반

21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

- 현재



- 주장하는 한국
- 과거 패러다임에 의한 해결방법 거부
- 직접민주주의적 요인
- 국내정치 우선
- 국제어젠더에 있어서의 뉴노멀 시도
- 전후체제로 부터의 탈피

22

New Normal화하고 있는 한일관계의 복원력 회복 잠재 요인

- 한일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공통적 견해 있음
- 어떻게 국내정치우선주의를 만족시킬 것인가?
- 여론의 향배
- 외압적 요인: '부족한 힘'에 대한 현실인식
- Attempted New Normal에 대한 사회적 합의
-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한미일 공조

23

새로운 한일관계 인프라 구축의 모색

- **한국** •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세계 제12위 경제대국)
- **일본** • 식민 직접 피해자에 대한 "마음의 치유" 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 **양국 정부에 영향력있는 지일/지한 리더들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국내정치적 요인 만족'을 위한 적극적 지혜의도출
 - 소극적/유보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 필요
- **지방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우호적 여론의 조성**
 - '부산-후쿠오카 포럼' 등의 활용
 - 한일 양국간 '긍정의 기억' 발굴과 홍보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2017)
 - 21세기판 조선통신사 선언 : 선린우호

24

새로운 한일관계 인프라 구축의 모색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한일협력 강화

- “북핵문제해결” 定義에 대한 인식 공유 (일본인 납치문제 포함)
- 긴밀한 한미일 정책공조를 통한 양국간 신뢰 촉진
-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한 공조

■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

- 예)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구상의 실현
 - 한일지역간 교류의 활성화: 국제특구구상
 - 유럽의 국경을 초월한 도시간 연계 참고 (Euregio)
- 한일 벤처기업 교류회의 설립을 통한 공동 유니콘기업 창출 등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제1세션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 상황 ~ 현장 보고 ~

2019년 9월 25일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 사장
모리야마 도모유키(森山朋之)

오늘의 아젠다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1)개요 (2)한국 사회·국민과의 교류 (3)일본인학교 운영
2. 한국미쓰이물산에 대해
(1)개요 (2)조직과 사업내용
3.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
(1)진출기업 수 (2)투자 실적
4. 주한 일본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1)한국경제 감속 (2)산업구조 변화 (3)한일문제
5. 우리의 희망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1)개요

1997년에 3개의 일본계 기관이 통합하여 출범. 한국 내 최대의 일본계 공동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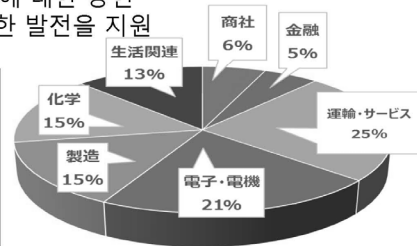


서울재팬클럽
(1997년 설립)

- 회원 수: 법인 390개사, 개인 1,591명 ※2019년 5월말 현재
- 연간 예산규모: 약10억 원 ※일본인학교 관련자산 제외
- 상공회 활동: 건의사항 제출, 법인 대상 세미나 및 공부회 개최, 시찰/연수의 기획과 실시
- 활동목적:
 -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계발활동, 복지 향상
 - ◎ 한일양국의 친선, 한국사회에 대한 공헌
 - ◎ 한일양국 경제관련의 원활한 발전을 지원

회원기업 390개사의 업종별 구성

상사	6%	24개사
금융	5%	21개사
수송·서비스	25%	96개사
전자·전기기계	21%	84개사
제조	15%	57개사
화학	15%	59개사
생활관련	13%	49개사



3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2)한국 사회·국민과의 교류

문화교류 (2018년 실적) (★사진)

- SJC주최 사업
 - ★ 제16회 한일 가라오케 대회



- 후원·협찬사업 (11건)

- 한일 젊은 음악가 교류콘서트 from Switzerland (국제교류기금)
- 2018년도(제20회) 전국 중고등학생 일본어학력경시대회 (한일협회)
- 한일청소년교류회「한 마음 한 목소리」 (한일협회)
- 2018년도(제6회) 전국대학생 일본어번역대회 (한일협회)
- 제4회 아시아미래회의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
-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일본대사관)
- 한일공동세미나 (자체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 제14회 한일교류말하기대회 (JETAA대한민국 지부)
- 제7회 한국대학생 일본어디베이트대회 (한국대학생 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 ★ 제3회 일본 유학&취업페어 (한일협회)



4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2)한국 사회·국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2018년 실적) (★사진)

기부처 (9군데)

- 노인요양시설 경주나자레원
- 한센병시설 성라자로마을
- 아동복지시설 꿈이 있는 마을(보화보육원), 동명아동복지센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혜심원, 목포공생원
- 기타 곰두리축구협회(장애인)
 배리어프리영화협회



사회공헌활동 (7건)

- ★이촌동 청소활동
- ★동명아동복지센터 어린이들의 일본계기업 「글리코 해태」공장 견학
- 배리어프리영화 관람회
- 성라자로마을 방문
- 보화보육원 어린이들을 프로축구경기 관람에 초대
- 혜심원 어린이들을 프로아이스하키경기 관람에 초대
- ★ 경주나자레원 방문



일본계 기업CEO의 강연회
 ★ 고려대학교(2회)
 ■ 가톨릭대학교(2회)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2)한국 사회·국민과의 교류

기업현장인재육성사업 (인턴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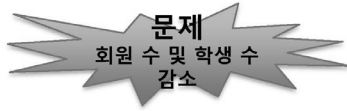
	2015 年度	2016 年度	2017 年度	2018 年度	2019 年度	合計
수용기업	14社	9社	28社	31社	32社	114社
인턴 실습생	20名	16名	51名	50名	55名	192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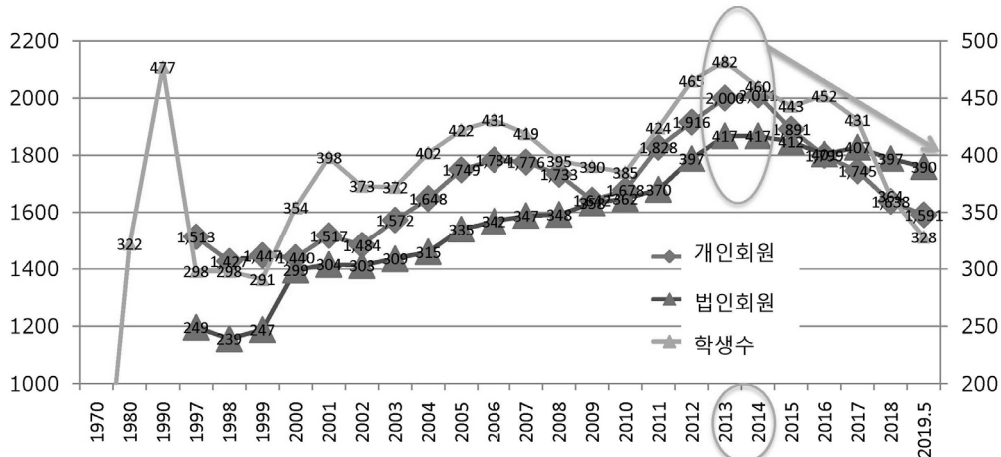
지금까지 수십 명이 일본계 기업에 취업

1. 서울재팬클럽(SJC)에 대해 (3)일본인학교 운영

- 한국거주 일본인 등의 자녀교육 지원 및 학력 향상을 위해 서울일본인학교를 설립 및 운영
-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 총 학생수: 328명 (2019년 5월 현재)



SJC 회원 수 및 일본인학교 학생 수 추이 (2013~14년도를 정점으로 감소 경향)



7

2. 한국미쓰이물산에 대해 (1)개요

상호	한국미쓰이물산 주식회사 (MITSUI & CO. KOREA LTD.)
설립	1993년 12월
자본금	160억원 (미쓰이물산 주식회사 100%)
종업원수	111명
대표자	대표이사 사장 모리야마 도모유키(森山朋之) (2018년 4월 ~)
소재지	서울시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동관 33층
URL	https://www.mitsui.com/kr/ko/



센터원빌딩



한일추제하만당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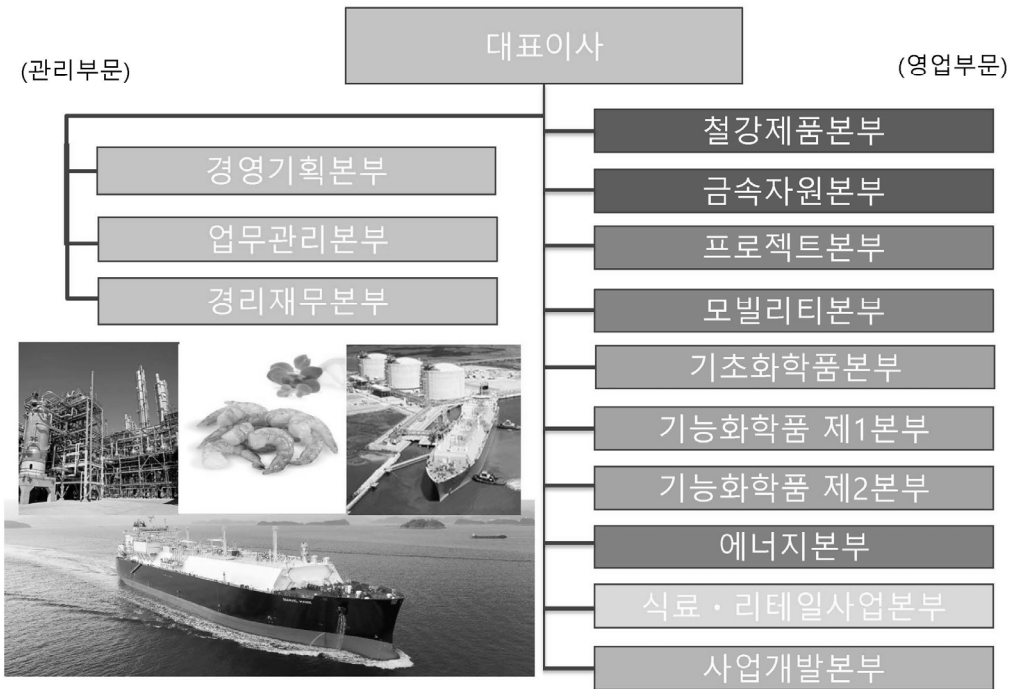
여름에 해마다 개최하는 BBQ대회



사회공헌활동(창덕궁 청소)을 하는 한국미쓰이물산 직원들

8

2. 한국미쓰이물산에 대해 (2)조직과 사업내용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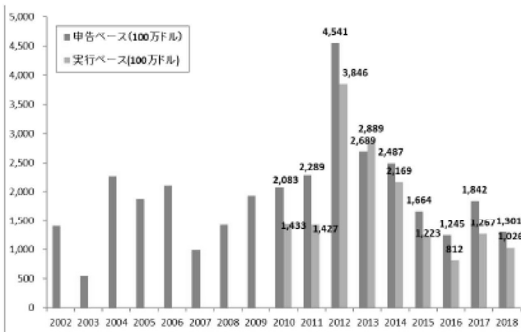
3. 한국에서의 일본기업 활동

(1) 진출 기업 수

- SJC(Seoul Japan Club) 법인회원 기업 수: 391개사(19년 7월) 고용 약5만명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정보(일본)」: 2,846개사(19년 7월)
- 도요경제신문사(東洋經濟新報社) 「2018년판 해외진출기업 총람」: 754개사(18년 6월)

(2) 투자 실적 (출처:JETRO한국경제정보 8월호)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추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실행베이스 통계는 2010년~.

○한국의 국가별 직접투자 유치(1962년-2018년 누계)

신고 순위	국가별	신고베이스	(%)	실행베이스	(%)
1	미국	76,884	31.2	34,509	22.5
2	일본	44,044	17.9	32,707	21.3
3	오ランダ	29,773	12.1	25,567	16.6
4	싱가포르	18,945	7.7	13,840	9.0
5	영국	16,544	6.7	13,110	8.5
6	香港	15,318	6.2	6,617	4.3
7	독일	13,726	5.5	10,380	6.7
8	중국	13,710	5.5	6,075	3.9
9	캐나다	8,902	3.6	3,722	2.4
10	말레이시아	7,899	3.2	6,621	4.3
합계		245,750		153,153	

1위부터 미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홍콩, 독일, 중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10

5. 우리의 희망

관계 개선 및 정상화

- ◆ 이를 위해서는...
 - 양국간의 커뮤니케이션 ~ 서로를 존중하며
 -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응, 논리적 사고
 - 자체단체 포함하여 이성적 행동을

- ◆ 제 개인 생각 ~ -기업인으로서...



- 우리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비즈니스에 매진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속한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5일
모리야마 도모유키(森山朋之)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서울 개최)
제2세션 「한일 공통과제의 실현!」
13:20~15:40
발표 슬라이드용 자료

한일 경제 관계의 현황과 향후

---공통과제 대응을 위해---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
오쿠다 사토루 (奥田 聡)
2019년 9월 25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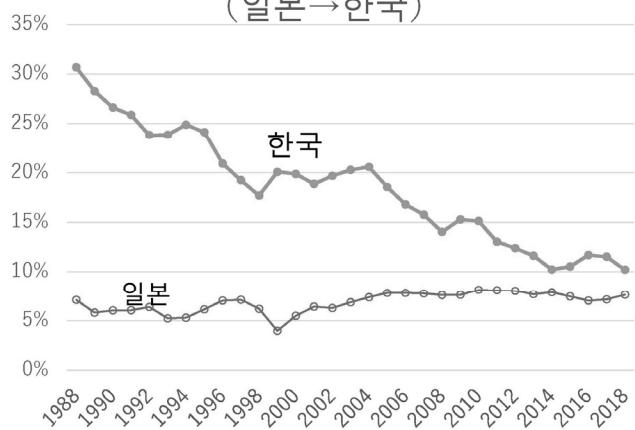
발표내용 목차

- 한일간의 상호의존
 - 한국의 「일본이탈」 상황 하에서 상호의존 심화
 - 무역 수평화 및 생산과정 상호의존
 - 「한일분쟁」에 대해
- 미래를 향해: 공통과제에 대한 대응
 - 공통과제에 대한 꾸준한 노력
 -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대응
 - 이웃국가간 협력
 - 상호 이해의 중요성

한일간의 상호의존

한국의
「일본이탈」과
상호의존 심화

한일무역 비중
(일본→한국)



데이터 출처: 일본 재무성,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일본이탈과 상호의존 심화 --한국측 상황--

- 한국의 「일본이탈」
 - 일본은 한국 산업 생산의 중요한 파트너.
 - 과거에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 부품, 소재에 크게 의존.
 - 그 후,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거의 일관되게 저하.**
 - 현재의 대일 수입 품목은 국산화 및 제3국 조달이 어려운 것이 많음.
- 한국의 대일 수입 비중이 저하된 요인
 - 국산화 추진
 - 중국, ASEAN 등 새로운 공급원이 등장
 - FTA 진전 (한-EU, 한미 등)
 - 동일본대지진

한국의 일본이탈과 상호의존 심화 --일본측 사정--

- 일본에서 본 한국의 중요도는 상승
 - 현재 일본의 대한무역 각국 비중 근접.
 - **일본의 대한수출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음**
 - 대한수출 비중은 1990년대 5-7%에서 2000년대에는 7-8%에서 추이
-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한국시장의 무게
 - 2018년 대한수출액은 525억 달러(약 5조 8000억엔, GDP의 1.1%).
 - 국내시장이 침체된 일본에게 중요한 존재.

한국의 일본이탈과 상호의존 심화

		수출의 부가가치원천 (주요국가·지역별)						
		수출국						
		일본			한국			
		1998	2008	2018	1998	2008	2018	
부가 가치 원천	일본	89.2%	80.8%	79.4%	7.3%	6.7%	4.7%	
	한국	0.5%	0.9%	1.1%	67.6%	58.9%	63.2%	
	중국	1.0%	3.0%	4.2%	2.7%	7.3%	8.2%	
	대만	0.5%	0.4%	0.4%	1.6%	0.7%	0.5%	
	ASEAN	1.1%	2.6%	3.0%	3.2%	4.4%	4.4%	
	EU	2.1%	3.1%	2.7%	4.4%	6.8%	5.2%	
	미국	2.7%	2.7%	2.4%	5.7%	4.1%	3.4%	
	기타	2.9%	6.4%	7.3%	7.5%	11.1%	10.4%	
	수출액(10억달러)		545.9	938.3	1059.5	109.4	439.2	648.6

데이터 출처: 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 (<https://worldmrio.com/>)

한국의 일본이탈과 상호의존 심화 --수출품의 부가가치원천 분석--

- 한국: 중간투입재 조달처를 일본에서 아시아 국가들로 이전.
 - 해외조달 전반 증가 경향
 - 중국·ASEAN 조달을 늘리고 선진국·대만 조달을 감소
 - 대일 조달도 감소 경향
 - 7.3% (1998년) → 4.7% (2018년)
- 일본: 중간투입재의 대한조달 증가
 - 해외조달 전반은 확실히 증가. 공급망이 국내 완결형에서 「아시아 외연형」으로 변화.
 -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ASEAN 조달이 증가.
 - 한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늘고 있음
 - 0.5% (1998년) → 1.1% (2018년)

현재의 한일분쟁에 대해

- 역사문제에 관한 양국간 이견이 경제 등 다방면으로 확산
 - 전시 중의 강제노동→현존 기업에 대한 배상명령→대한수출 관리 강화→GSOMIA 파기→???
- 관계 악화를 막아주는 중심이 소실
 - 「경제관계는 순조로우니까 괜찮다」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됨.
 - 한일관계 냉각이 장기화될 가능성
-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강제노동에 관여한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명령과 대한수출관리 강화는 명백한 비즈니스 저해 요인
 - 민족의 자존심과 경제적 이익의 트레이드 오프 양상.
 - 언제까지나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 어디선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한일분쟁에 대해 --수출관리 강화를 둘러싸고--

- 한국측 득실
 - 포괄허가 활용, 개별신청 허가 등, 공급정지 가능성은 축소.
 - 문제는 부품소재 납기의 불안정화. **Just in time 생산에 타격.**
 -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 감소.
 - 부품소재 국산화, 제3국 공급 등의 계기.
- 일본측 득실
 - 부품소재 외에 소비재, 소비자 위한 서비스(방일관광객 등)에서 기회 상실.
 - 한국기업에게 대일 조달은 리스크 요인(특히 백색국가 제외 이후)
 - 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 손실은 확대. 비즈니스기회 상실 고정화 우려.

미래를 위해

---공통과제에 대한 대응---

공통과제에 대한 꾸준한 대응

- 대응 과제를 선정

- (1) 한일이 직면한 공통의 협력과제

- 고령화 대책
 - 글로벌 인재 협력
 -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국가에 대한 부품소재 등 공급 강화
 - 여행자의 편의성 제고

- (2) 지리적 근접성에서 본 협력과제

- 환경협력
 - 에너지 및 재해 협력
 - 어업협정

고령화 대책에 대한 경험을 전수

-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비붐세대)가 70대에 들어선 일본
 - 연금, 건강보험, 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재정 주도로 준비해 온 일본
 - 동양적인 가족관을 전제로 한 제도 구축과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 앞으로 복지 수요가 급증할 한국
 - 베이비붐 세대(구 386세대)가 향후 잇따라 노동시장에서 퇴출
 -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는 갖춰졌으나 재정투입 없는 상태로 본격 운용할 태세
 - 보험료 미납 등 사각지대가 사회적 문제로.
 - 제도 공동화, 기금 고갈 등에 대한 우려도
 - 10-15년 정도 선행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로

13

글로벌 인재 협력

- 글로벌 인재의 고용 및 육성
 - 한국인 인재가 일본에서 취업
 - 지식, 기술/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한 의욕 등 정평이 나 있음.
 - 일본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일본어가 가능하고 일본에서 정착 의지가 있는 인재.
 - 일본의 구인은 주로 중소기업인데 학생들 희망은 대기업. 인재 정착이 과제.
 - 일본인 인재의 글로벌 육성
 - 기업의 글로벌인재 수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국내지향 문제.
 - 학생의 해외연수 기회를 늘려야 함. 가장 가까운 외국, 한국기업이 수용해 줄 것을 희망.
 - 「인턴」 :일본에서는 단기연수, 한국에서는 정식 채용 전의 실습.

한국기업 해외진출처에 대한 부품소재 등 공급 강화

-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 납기 불안정화에 대응
 - 대한수출은 백색국가(그룹A) 제외로 인해 납기가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대두됨.
 - 이대로 가면 대한수출이 점차 감소될 가능성도.
 - 한국기업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해외 진출처 대상 세일즈를 통해 일본기업 매출감소 상쇄
 - 특히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계거점에 대한 세일즈 강화.

여행자의 편의 제고

- 여행자 · 해외 접근편의성 향상
 - 외국인(미등록자)에 대한 한국내 인증수단 발급
 - 주민등록번호, i-PIN 입력이 필수인 웹서비스에서 외국인이 배제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 무료 Wifi 구축
 - 주요 시설 외에는 무료 와이파이 구축이 아직 미비. 한일 모두 더욱 확충할 필요
- 여행자의 캐시리스 촉진
 - 교통카드, 주요 전자화폐의 국가간 호환
 - 소액 가상화폐 지불

환경 협력

- 한일 환경협력의 중요성
 - 지리적 근접성과 해류 및 기류 관계로 일본이 영향을 받기 쉽다.
 - 국제환경 협력에서 입장이 비슷해 공동대처하기 좋다.
- 양자간 협력의 틀
 - 1993년 한일환경보호협력협정 체결, 매년 한일환경보호합동위원회 개최.
 - 표착쓰레기, 기후변화, 순환형사회, 탄소상쇄(Carbon offset), 폐기물이동, 철새 보호 등을 논의.
- 한중일 협력의 틀
 - 1999년부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매년 개최.
 - 표착, 황사, 대기오염, 화학물질, 생물다양성 등. 국경초월 오염 대책.

에너지 및 재해 협력

- 에너지 믹스
 - 에너지 믹스 실천사례로서 일본의 대응을 알린다.
 - CO2배출 억제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LNG 활용에 한국이 관심.
- 에너지 확보
 - 재해 시에 대비한 상호 융통성.
 - 공동비축, 한일송전선 구축, 한반도 파이프라인을 일본까지 확장.
 - 국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공동 보조
 - LNG 도착지 조항 철폐
 - LNG 등에 대한 공동 개발

어업협정

- 2016년 이후 상대방 EEZ에서 어업금지상태 계속됨
 - 1999년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서 정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결렬, 상대방 EEZ에서 어업조업 불가능.
 - 일본측은 한국측의 난획, 어구방치(게바구니 방치가 유령어업으로 이어짐)를 이유로 협의 결렬.
- 자원관리 협력이 필요
 - 주요 어장은 일본측 EEZ에 있어 한국측 어선 손실이 크다.
 - 자원 관리를 통한 어업지속을 위한 한국측 협력이 반드시 필요.

마지막으로

- 협력의 모멘텀 유지가 중요
 - 한일분쟁은 장기화 양상
 - 따라서 꾸준히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관계 복구의 힘이 된다
- 한일간 대립이 경제분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지혜
 - 수출관리 강화에 따른 납기 불안정화와 대일발주 보류 움직임
 - 징용공 소송이 계속 발생할 경우 대한비즈니스 냉각
 - 한일분쟁의 격화 및 장기화는 경제 측면에서 매우 곤란
 - 역사인가, 현재의 경제적 이익인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 지금이야말로 상호이해 필요
 - 상대방의 요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한일분쟁의 배경
 - 정치인의 메시지 발신은 신중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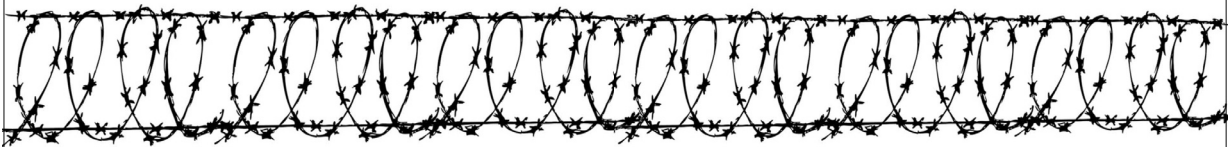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Way to go!



Sep. 25th 2019

Seo Seok-Soong
51th K-J Conference



Warning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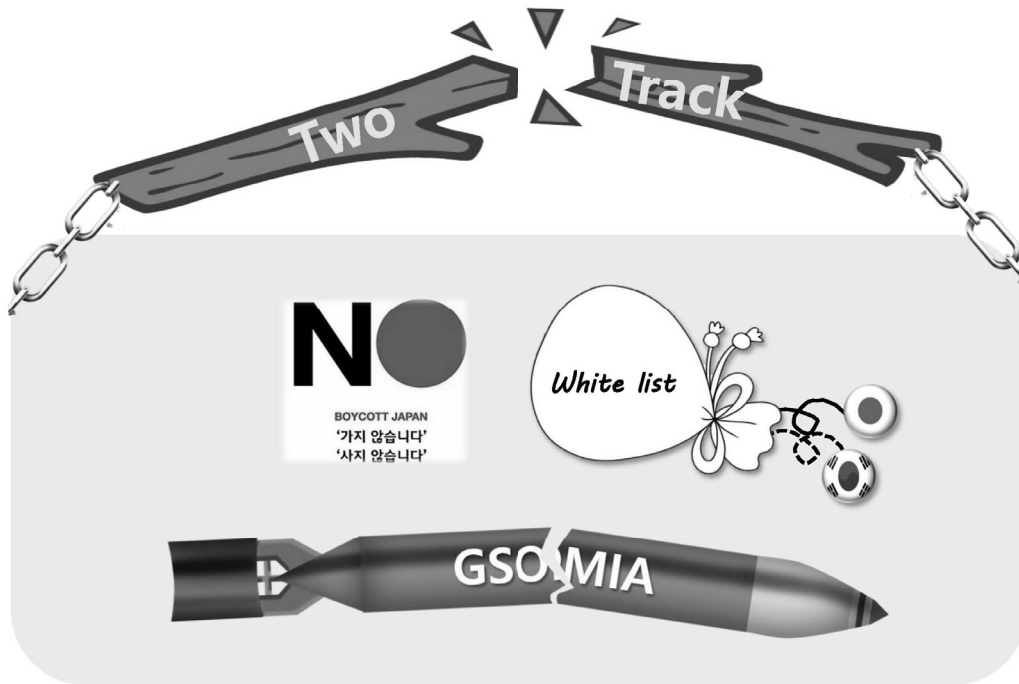
*Up to the potential
&
Sustainable Cooperation*



betw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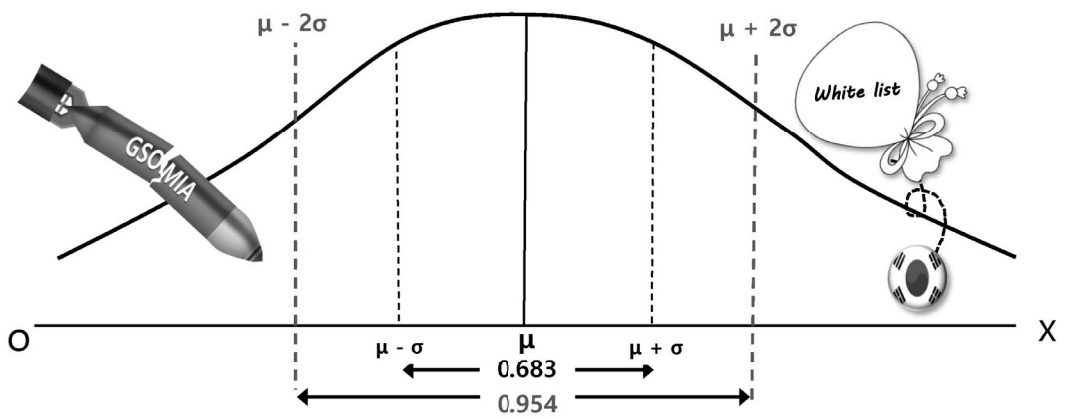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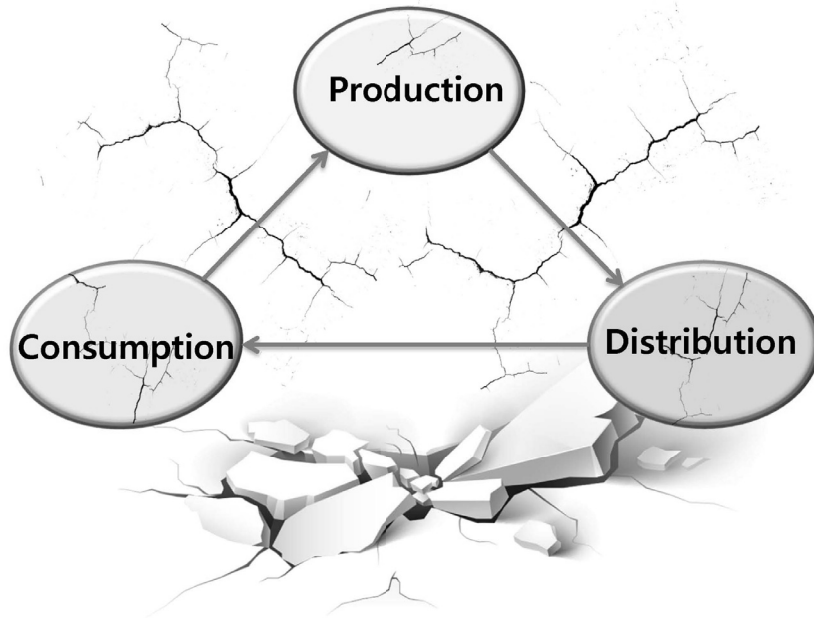
3

Extr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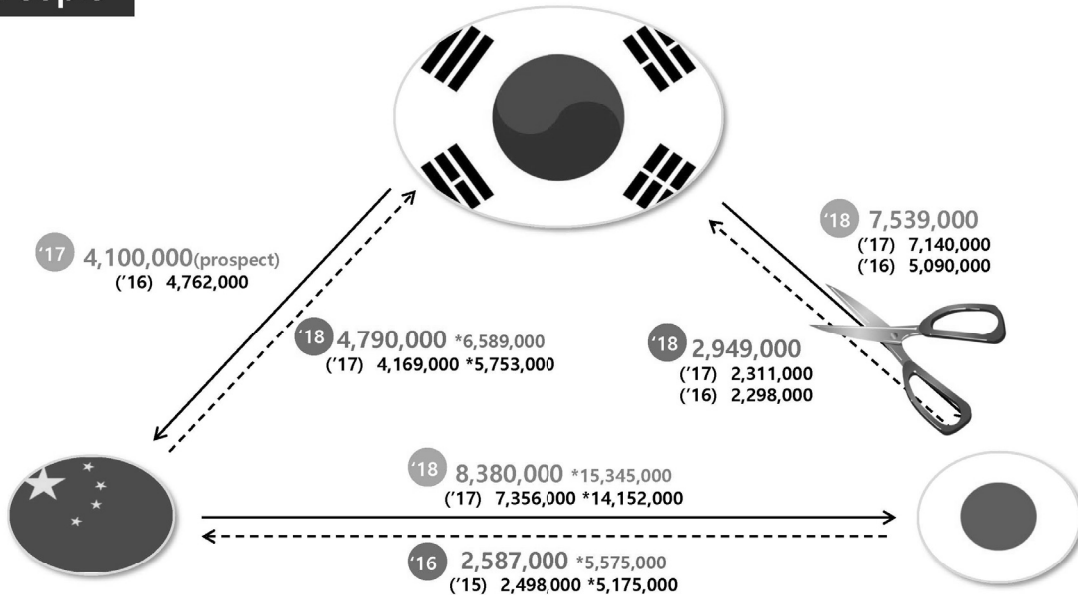
4

Unstabl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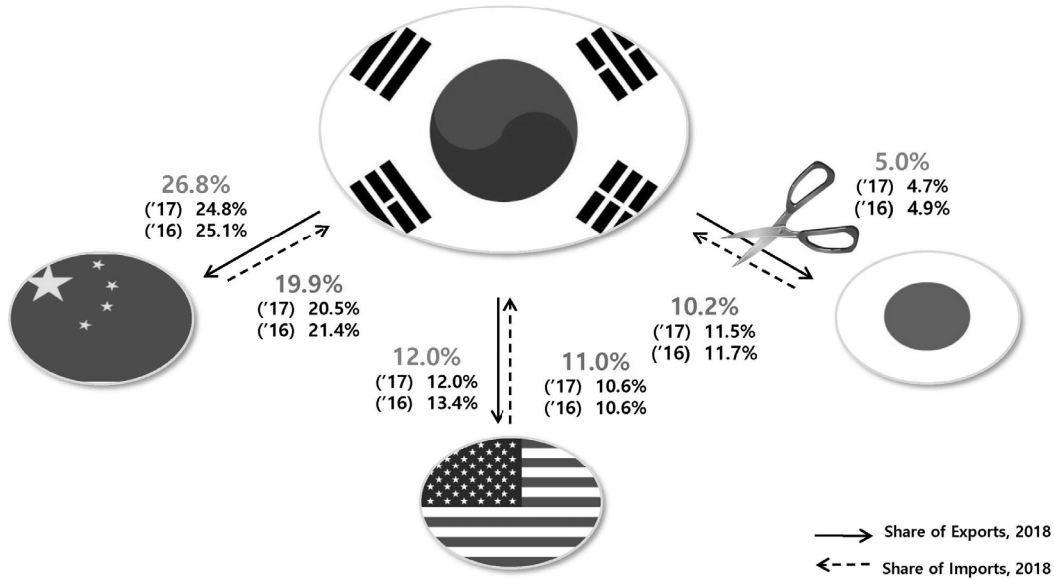
People



Source : MOJ(KR), JNTO etc
* : include Hong Kong and Taiwan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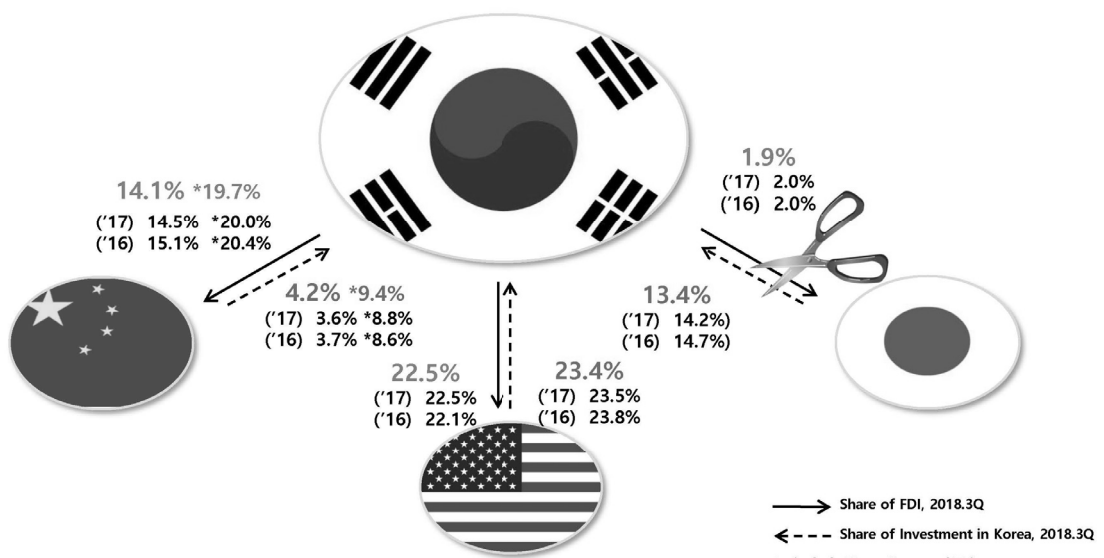
Trade



Source : KITA

7

Investment



Source : MOTI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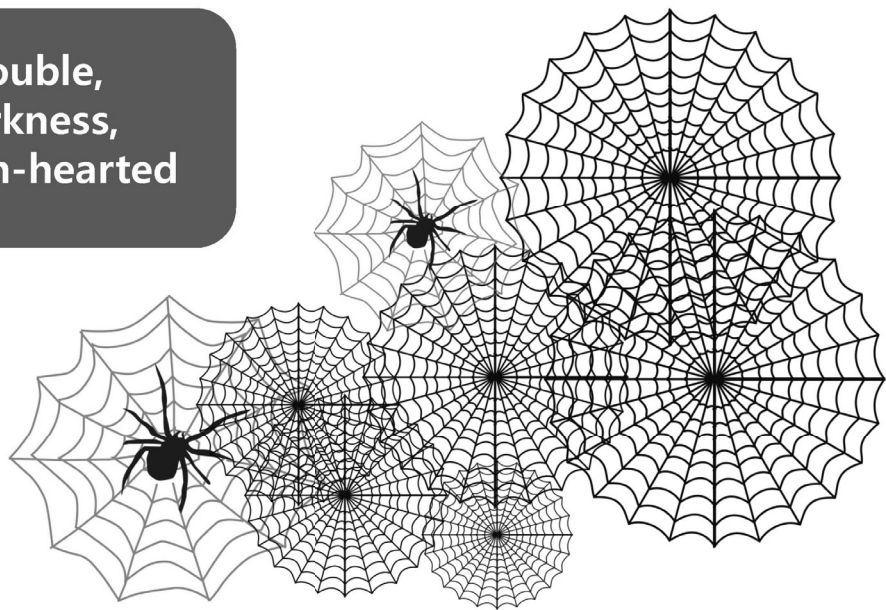
Once upon a Time...



Source : AP newsis · Dong-A Daily News

As of Present...

**Trouble,
Darkness,
Broken-hearted**



In the long-r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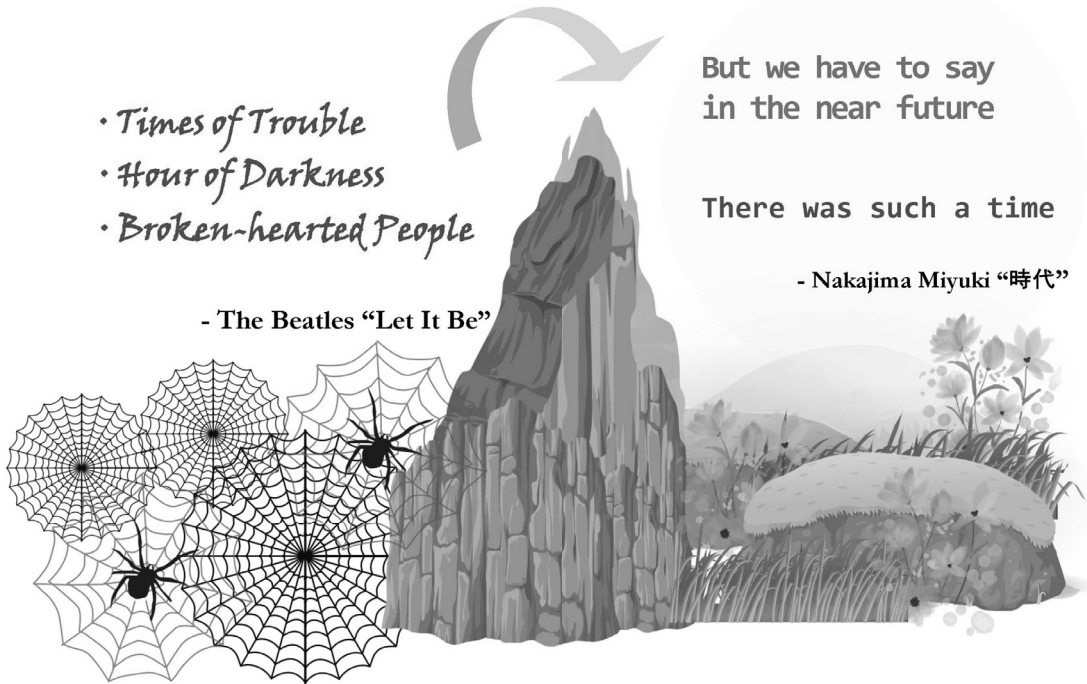
- *Times of Trouble*
- *Hour of Darkness*
- *Broken-hearted People*

- The Beatles "Let It Be"

But we have to say
in the near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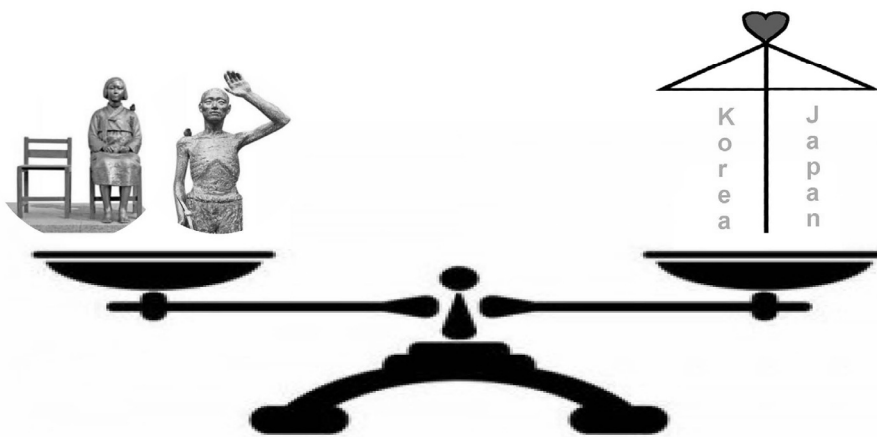
There was such a time

- Nakajima Miyuki "時代"



11

Victims...? in the future



Quick Action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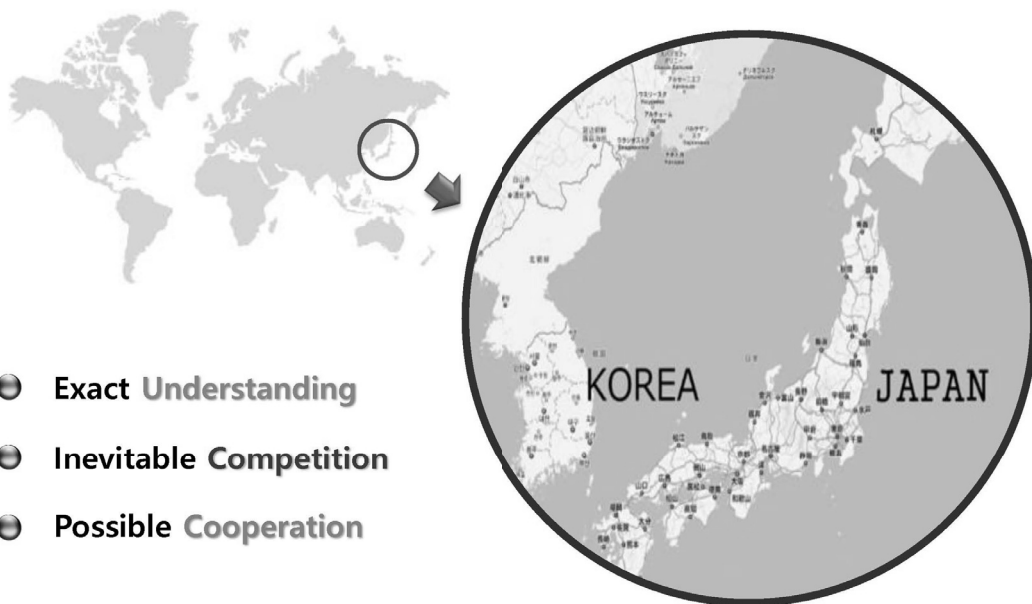
Solution

苦集滅道

- Where to go?
- What to do?
- How to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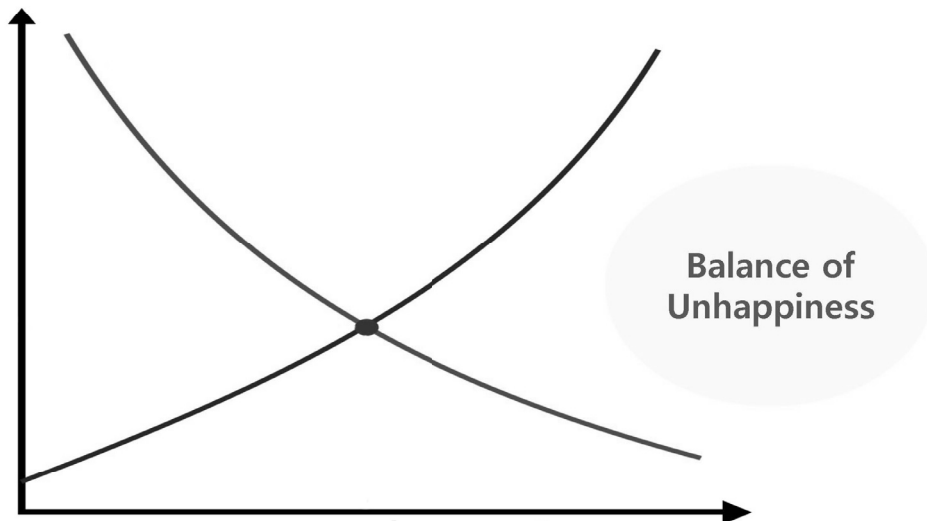
13

Only Truth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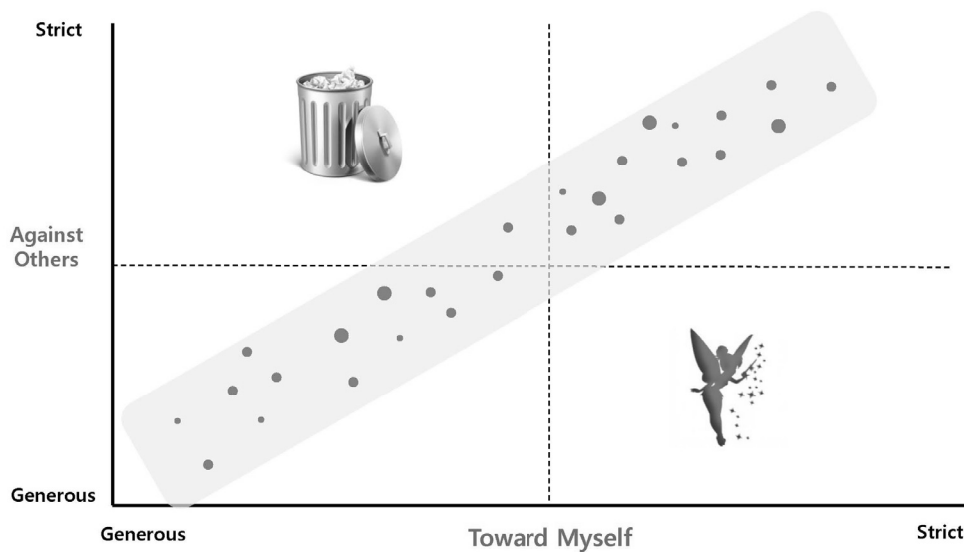
Basic Theory



15

No! double standards

Generous ————— Str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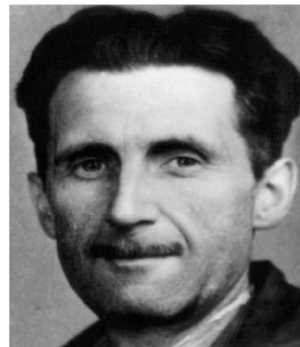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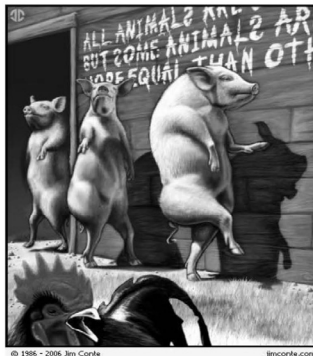


16

George Orwell (1903~1950)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 From “Animal F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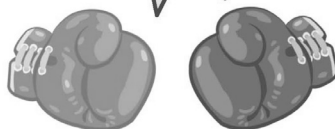


17

Be Careful!



Company



Company

Solution	>	Problem
Player	>	Spectator
Realistic	>	Idealistic
Micro	>	Macro
Action	>	Verbal
Freedom	>	Regulation

18